

# 나눔의 햇살이 사랑의 온도 올린다

●  
사랑의온도탑의 수은주는  
나눔의 햇살로 올라갑니다.  
경기 침체로 경제 한파가 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은 위기 속에서 더 큰 사랑을  
전했습니다. 올해도 이웃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성금에  
담아 사랑의 온도를 높여 주세요.

## 희망 2019 나눔캠페인

사랑의  
햇살의  
열매 20년  
나눔으로 행복한 세상

사랑의열매

사랑의열매  
2018.12

# 새마을의열매 12 사랑의열매

Issue 140 \ December 2018

새마을의열매  
12 사랑의열매

## 희망2019나눔캠페인 겨울에 찾아오는 사랑의 기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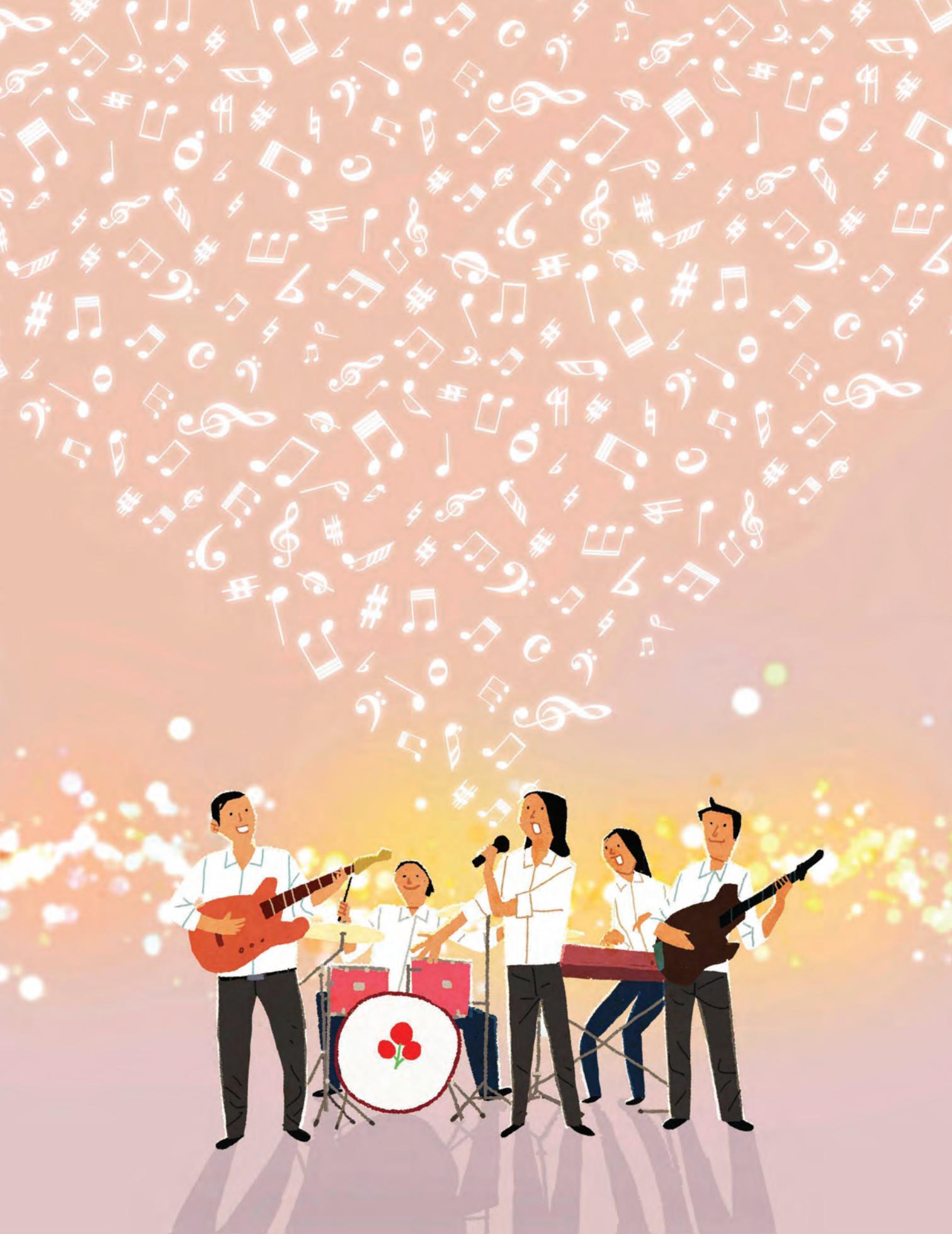
'사랑의 온도 25.0도'

나  
눔  
으  
로  
행  
복  
한  
세  
상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사랑의열매





## 꿈을 꾸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8월 중순.  
홍대 막걸리 집에서 오랜만에 만난 선배  
창립 20주년 기념식에 열매 밴드를 올려보자 제안했다.

밴드는 2010년 4월 시작됐다.  
지회별로 직원 간의 교류가 거의 없던 시기였다.  
전국 직원 워크숍에서 모집한 13명.  
겁도 없이 그해 9월 말 제8회 UWW 아태총회 무대에 올랐다.  
나름 성공적인 무대에 빗발치는 출연섭외를 기대하며 잠시 들렸으나  
못매를 맞던 시기가 찾아왔고 직원 모두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다.

우리는 뭐라도 해야겠기에 위로와 희망을 담은 UCC를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리기로 결정했다.  
많은 직원이 제작비 모금에 동참해 주었고, 영상제작자는 재능을 기부했으며  
저작권자의 음원 사용 허락도 받아 '나는 나비' UCC가 완성됐다.

그 후 8년이란 시간이 지나 다시 무대에 섰다.  
모두가 참여할 수 없었지만  
1년 차 직원부터 20년 차 선배까지  
제주지회부터 경기북부사업본부까지  
처음보다 더 많은 직원이 참여하는 열매 밴드가  
즐겁게 준비해 무대에 올랐다.

무대 위 우리도 감동했고 무대를 바라본 직원도 울컥했다고 전해 들었다.  
20명 합창단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함께했던 시간이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었고,  
열매 밴드는 창립 30주년 기념 공연을 다시 꿈꾸기 시작했다.



01 목차

08

First News

희망2019나눔캠페인

12

이슈

사랑의열매 창립 20주년 기념식

14

포커스

사랑의열매 '2030 비전' 2,000여 명이 숙고하고 공리해

16

기획

맛있는 김장김치·훈훈한 난방... 어려운 이웃의 겨울을 따뜻하게

18

얼굴

- ① 한시준 울산 사랑의열매 신입회장
- ② 김남식 제주 사랑의열매 신입회장

20

포토뉴스

- ① 이연복 세프, 사랑의열매 홍보대사 되다
- ② 평가지원단과 행복한 동행

22

착한기업

하나금융그룹

28

희망스토리

외로운 아이들과 2030세대... 마음을 읽다, 마음을 잇다

30

착한일터

KGC인삼공사



Cover

광화문광장 사랑의온도탑 앞에서 희망2019나눔캠페인 성공을 기원하는 이연복 세프, 기부자 대표 현송 양,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 예종석 사랑의열매 회장, 윤영석 서울 사랑의열매 회장, 김연순 사무총장(왼쪽부터).

32

착한가게가 있는 풍경  
서울 미술관 나들이

36

현장

11년 이어온 사랑의 축구대회

38

소식

현영 홍보대사, 엔젤마켓 자선바자회 성황

40

Alive CCK(Community Chest of Korea)

전북 사랑의열매

44

The Page

나눔을 세계 삼아 마음의 때를 씻겨주다

46

나의 나눔 이야기

어르신에 빵 기부... 기분이 뽕뽕합니다

47

사랑의열매 뉴스

중앙회·전국 17개 지역별 소식

57

이달의 아너 소사이어티

세상을 바꾸는 당신의 결심, 고맙습니다!

58

독자 페이지



사랑의열매 vol. 140 2018 / 12

발행인 예종석  
발행일 2018년 12월 / 통권 140호  
발행처 사랑의열매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1길 39 사랑의열매 회관 5층  
만든이 사랑의열매 대외홍보본부  
구독안내 tel 02-6262-3000 fax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중, 라00605  
기획·편집디자인 조선뉴스프레스 tel 02-724-6783  
인쇄 (주)타라TPS tel 031-939-2049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자료는 사랑의열매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하며,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첫!**  
**사랑의열매**  
시작한다!

어리니까  
사랑이 뭔지 모른다고요?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소액기부부터 나눔 활동까지,  
사랑을 전하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니까요.

당신,  
지금 사랑하고 있나요?

포털에 **사랑의열매** 검색하고  
당신의 사랑을 전해주세요!

기부상담 080-890-1212  
ARS기부 060-700-1212  
홈페이지 [www.chest.or.kr](http://www.chest.or.kr)

20년의 **사랑!**

어렵던 시절,  
사랑의열매 장학금으로  
다시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랑을 보내준 당신처럼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하겠습니다.

받은 사랑에서  
주는 사랑으로

사랑은 그렇게 계속됩니다.

\* 사랑의열매 홍보대사 배우 채수빈님이  
재능기부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사랑의열매** 검색하고  
20주년 **폴스토리**를 확인하세요!

기부상담 080-890-1212  
ARS기부 060-700-1212

## 희망2019나눔캠페인 출범

# 73일간 이어지는 온기 100℃의 기적을 만듭니다

나눔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73일간의 나눔 여정이 시작됐다. 지난 11월 20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연말연시 이웃돕기 범국민 모금을 위한 '희망2019나눔캠페인'이 출범했다. 캠페인 출범식과 함께 캠페인의 상징인 '사랑의온도탑' 제막행사도 가졌다. 올해 캠페인은 11월 20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73일간 전개된다.

### 광화문광장에서 출범식... 4,105억 원 모금 목표

사랑의열매는 지난 11월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희망2019나눔캠페인' 출범식과 사랑의온도탑 제막식을 갖고 73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올해 캠페인 모금 목표액은 4,105억 원으로 지난해 모금액 4,051억 원보다 1.3%가 높은 액수다. 사랑의온도탑은 목표액의 1%인 41억 500만 원이 모금될 때마다 1도씩 올라 목표액이 달성되면 100도가 된다.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예종석 사랑의열매 회장, 운영석 서울 사랑의열매 회장,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 김연순 사랑의열매 사무총장, 사랑의열매 홍보대사인 이연복 셰프, 기부자 대표 현송 양이 참석했다. 현장에는 나눔문화에 관심을 가진 시민 300여 명이 모여 희망2019나눔캠페인의 시작을 축하했다.

최충현·차미연 아나운서의 사회로 시작된 출범식은 내빈 소개와 김연순 사무총장의 캠페인 경과보고와 인사말,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김연순 사무총장은 "지난해 캠페인은 모금 목표액 3,994억 원보다 57억 원 많은 4,051억 원을 모금해 사랑의온도탑은 101.4도를 기록했다"며 "올해도 여러분의 사랑으로 온도탑이 뜨겁게 달궈져 100도를 넘을 수 있도록 동참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 예종석 회장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예종석 사랑의열매 회장은 "한 사람의 참여가 한 가족에게 삶의 빛이 될 수 있고, 나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삶의 이유가 될 수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정성을 받들어, 외롭고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삶의 용기와 희망을 전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축사에서 "해마다 목표액을 달성해 왔는데 올해는 경기가 좋지 않아 걱정이 된다"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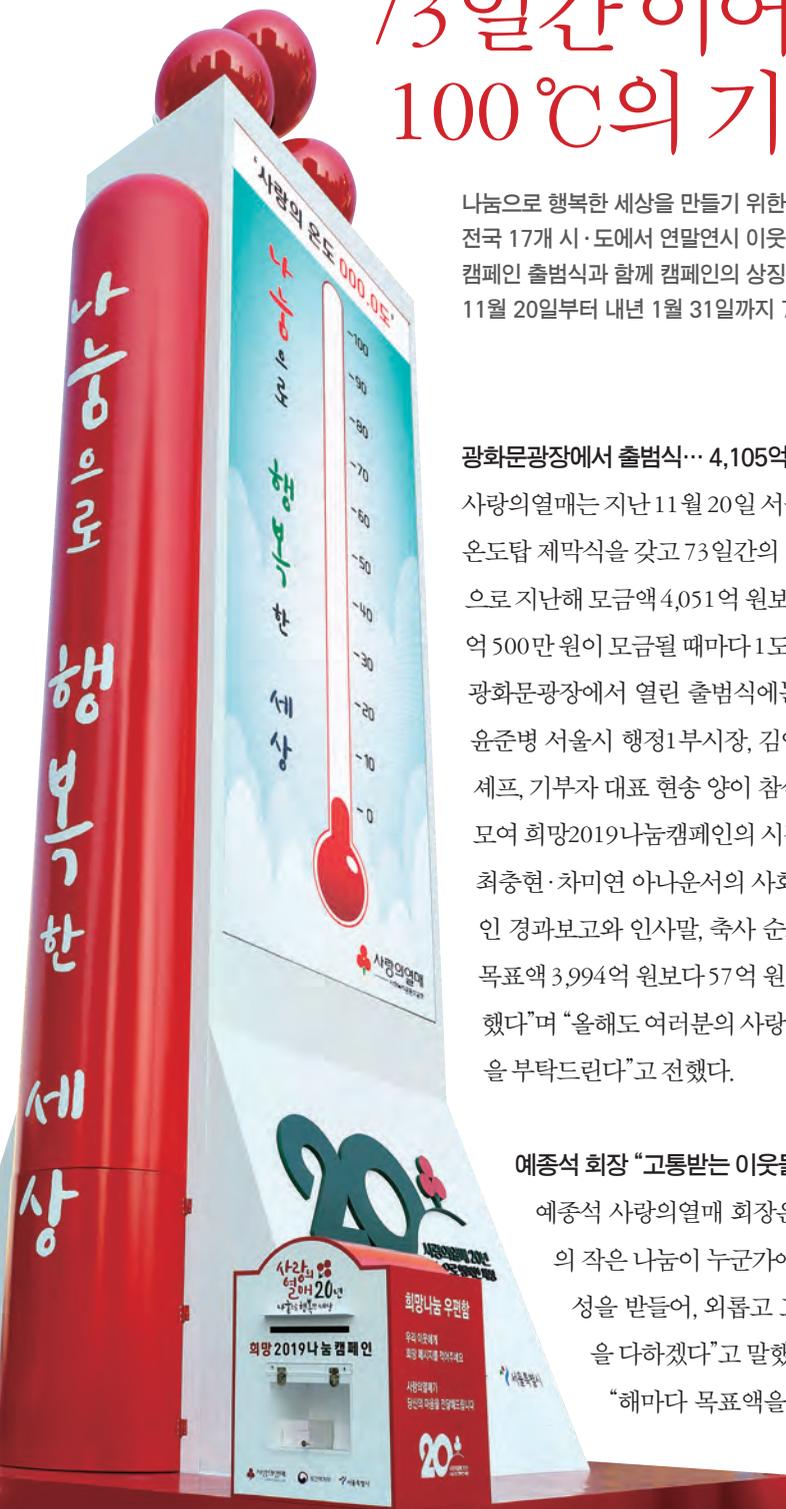
"73일간 여러분이 정성을 모아주면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행사에는 특별한 손님인 초대됐다. 2009년 첫돌을 맞아 기부를 시작해 지금까지 기부를 하는 현송 양이다. 현양은 부모님이 첫돌을 기념해 사랑의열매에 기부를 하면서 인연을 맺게 됐으며 2014년부터는 자신이 용돈을 모아 경북 사랑의열매에 꾸준히 기부를 하고 있다.

올해 10월부터 사랑의열매 홍보대사를 맡게 된 이연복 셰프는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해서 우리나라는 나눔이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힘들수록 그 힘을 발휘해 더 많은 나눔을 해왔던 저력이 있기에 우리 모두가 힘을 내 추운 겨울을 이겨내자"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출범식의 하이라이트는 사랑의온도탑 점등식이었다. 예종석 회장 등 내빈이 단상 앞에 마련된 버튼을 누르자 '나눔으로 행복한 세상'이라는 모금캠페인 슬로건이 화면에 뜨고 온도탑의 수은주는 '0'에 맞춰졌다. 광화문광장에 세워진 사랑의온도탑은 LED화면을 활용해 사랑의온도 외에도 다양한 나눔메시지와 영상을 송출해 시민들과 소통하는 온도탑으로 제작되었다.

### ARS전화기부·문자기부도 받아

나눔을 실천하려면 이번 캠페인 기간 동안 ▲ARS전화기부(060-700-1212/3,000 원) ▲문자기부(#9004/문자당 2,000 원)를 통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다. 또 ▲사랑의열매 로고가 부착된 물품을 구매하면 판매가의 일부가 자동으로 기부되는 '나눔상품(CRM)' 구매 ▲사랑의열매 홈페이지에 안내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적립된 포인트 등을 기부하는 포인트 기부 등으로도 가능하다. 지상파TV 3사와 공동으로 전개하는 모금 생방송, 지하철, 은행 등에 비치된 사랑의열매 모금함, 사랑의열매 홈페이지(www.chest.or.kr) 온라인계좌 등을 통해서도 나눔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부 상담은 사랑의열매 나눔콜센터(080-890-1212)를 통해 할 수 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원



충북



충남

### 전국 시·도 사랑의열매도 일제히 캠페인 시작

서울 사랑의열매는 광화문광장에서 중앙회와 함께 출범식을 갖고 545억 원을 목표로 캠페인을 시작했다. 또한 서울 사랑의열매는 이번 희망2019나눔캠페인 기간 동안 25개 자치구와 함께 온도탑제작식, 모금 생방송 등 각종 행사를 진행하고 서울지역 대표나눔사업인 '2019희망온돌 따뜻한겨울나기' 사업을 내년 2월 19일까지 펼칠 예정이다.

**부산 사랑의열매**는 송상현광장에서 출범식을 갖고 모금액 126억 원을 목표로 캠페인을 시작했다. 부산대학교 부속초 중창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각계각층의 따뜻한 마음을 담은 나눔메시지를 전했으며, 손심심·김준호 국악인 부부의 성공 기원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2015년부터 매해 첫 번째 기부를 이어오고 있는 DSR에서 올해도 1억 원을 기부하며 첫 번째 나눔주인공이 됐다.

**대구 사랑의열매**는 동성로광장에서 캠페인 출범을 알리며 나눔 대장정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번 캠페인 기간 모금 목표액은 99억 8,900만 원으로 지난해 모금액과 동일하다. 사랑의온도탑은 대구 시민들이 나눔온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 중앙치안센터 앞에 세워졌다.

**인천 사랑의열매**는 남동구 길병원 사거



인천

리에서 '사랑의온도탑'의 불을 밝혔다. 지난해와 동일한 74억 7,000만 원을 목표로 73일간의 레이스에 돌입했다. 첫 기부는 캠페인 출범과 함께 한국GM에서 경승용차 스파크 30대를 전달해 훈훈한 시작을 알렸다.

**광주 사랑의열매**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광장에서 사랑의온도탑 제작식을 갖고 목표액 53억 4,900만 원 달성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캠페인 첫 기부로 기아자동차 1억 7,000만 원, 삼성전자광주사회공헌센터 1억 5,500만 원, 그린알로에 1억 3,000만 원, 농협중앙회광주지역본부 5,020만 원 등 기부 행렬이 이어졌고, 김장김치 버무리기 행사도 진행됐다.

**대전 사랑의열매**는 대전시청 남문광장에서 사랑의온도탑 제작식을 갖고 희망2019나눔캠페인을 시작했다. 올해 목표액은 59억 3,500만 원. 이날 계룡건설과 금성백조주택, KEB하나은행, 한국철도공사에선 각각 1억 원씩 성금을 기탁했고, 대전청과(주), 대전중앙청과(주)는 김장 배추 1만 포기씩 기부했다. 갤러리아 타임월드는 연탄 1만 장을 지원했고 한국수력원자력(주)중앙연구원은 사회복지기관에 승합차를 후원했다.

**울산 사랑의열매**는 울산시청 시민홀에서 2018 이웃사랑 유공자 시상식 및 희망2019나눔캠페인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광주 주식회사 제이에스시 회장, 손웅연 총당 대표가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았고 시장상과 시의장상, 교육감상, 울산공동모금회장상 등 모두 35개 단체와 개인이 수상했다. 울산 사랑의열매는 70억 원을 목표로 모금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경기 사랑의열매**는 경기도청 오거리에서 사랑의온도탑 제작식을 갖고 본격적인 모금캠페인에 돌입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순선 경기 사랑의열매 회장, 김희경 경기도행정1부지사, 송한준 경기도의회의장,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김소영 홍보대사 등이 참석했다. 올해 목표액은 316억 800만 원이다.

**경기 사랑의열매 북부사업본부**는 파주시 금촌역 앞 광장에서 캠페인 출범식을 갖고 53억 100만 원을 목표로 모금활동에 들어갔다. 북부사업본부는 캠페인 기간 파주시를 시작으로 가평군 읍내파출소 앞, 고양시 화정역, 의정부역 광장에 각각 사랑의온도탑을 설치할 예정이다.



광주



대전



전남



경북

66억 8,900만 원을 목표로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대한노인회충북연합회에서 어르신들의 정성이 담긴 1억 4,000만 원을 전달했고 (주)충북소주에서도 10년째 이어온 사랑의연탄나눔을 위해 580만 원을 기탁했다. 연중 착한가게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는 내덕어린이집 아이들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을 기부했다.

**충남 사랑의열매**는 충남도청 광장에서 캠페인 출범식을 갖고 167억 7,000만 원의 모금액을 목표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성우중 도원이앤씨 대표는 3억 원을 전달해 첫 기부자가 됐으며, 현대오일뱅크에서도 나눔의 쌀 3만 7,000포(7억 7,000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 애터미(주) 또한 2억 6,000만 원의 성금을 전했고, 충남개발공사도 7,500만 원을 기부했다.

**전북 사랑의열매**는 전북도청에서 캠페인 출범식을 갖고 지난해보다 높은 75억 원을 목표로 모금활동에 돌입했다. (주)단석산업이 올해 캠페인 1호 기부금을 전했으며, 안골노인복지관 등 3개소에 2019 배분사업 지원금을 전달했다.

**전남 사랑의열매**는 전남도청과 전남의회 사이 광장에서 전남도민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캠페인 출범식을 갖고 97억 6,400만 원 모금을 목표로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날 첫 기부로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가 7억 원을 기탁했으며, 양광용 인터그룹 회장이 아동의류 500벌, 목포시와 신안군에서 나눔장터 물품을 기탁했다. 또한 예담모시송편에서 떡 200박스를, 너랑나랑지역아동센터에서 바자회 수익금을, 명랑시대외식청년창업협동조합에서 수익금을 기부했다. 불우이웃에 전달할 김장담그기 행사도 진행했다.

**경북 사랑의열매**는 경북도청 앞에서 캠페인 출범식을 갖고 전년보다 5% 늘어난 152억 원을 목표로 모금

활동을 시작했다. 출범식 당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장경식 경북도지사,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및 23개 시·군 단체장은 전국 최초로 '나눔리더'에 동시 가입하며 첫 기부자가 됐다. 또한 이날 권영만 효심요양원 대표가 1억 원을 기부하며 아내 소사이어티에 가입했다.

**경남 사랑의열매**는 창원시청광장에서 캠페인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모금활동에 들어갔다. 올해 경남은 전년도와 동일한 92억 6,000만 원을 목표로 모금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 사랑의열매**는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도내 기관·단체장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캠페인 출범식을 갖고 지난해보다 많은 47억 7,500만 원을 목표로 모금활동에 돌입했다. 캠페인 상징물인 '사랑의온도탑'은 노형오거리(노형타워 앞)와 제주도청 로비에 설치됐다.

**세종 사랑의열매**는 세종시청 광장에서 사랑의온도탑 제작식을 갖고 10억 9,500만 원을 목표로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날 행사에서 조형권 토담낙지한마당 대표가 아내 소사이어티에 가입했으며, 오영철 일미농수산 대표 3,000만 원, 김윤희 흥덕산업 대표 3,900만 원, 이종철 현대주류상사 대표 1,000만 원 등 잇따라 성금을 기탁해 훈훈하게 행사가 마무리됐다. ♡



울산



경기



경기 북부



경남



제주



세종



이슈  
글 한상현 사진 이신영

## 사랑의열매 창립 20주년 기념식 ‘나눔으로 행복한 세상’ 비전 밝히다

사랑의열매는 스무 살 생일을 맞아 지난 11월 12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갖고 ‘나눔으로 하나되는 행복한 세상’을 향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사랑의열매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2030년까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나눔 인프라를 확대하고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예종석 사랑의열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모금 및 배분사업의 질적 향상과 미래 신성장 동력의 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나눔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12일 기념식이 열리는 세종문화회관에는 아침부터 사회 저명인사들과 사회복지 관계자, 사랑의열매 홍보대사 등 손님들이 몰려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전국 각지에서 사랑의열매 창립 20주년이라는 뜻깊은 시간을 함께하기 위해 먼 길음도 마다않고 달려왔다. 행사에는 예종석 사랑의열매 회장과 김성수·한승헌·이세중·이동건·허동수 전 사랑의열매 회장 등 사랑의열매 관계자,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장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송상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회장, 조홍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박종문 아름다운재단 이사장, 오승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김희중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의장,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 등 유관기관 대표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사랑의열매 홍보대사인 배우 채시라씨와 가수 인순이씨, 박상민씨 등이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20년간 사랑의열매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장 로비에는 8개의 주제로 정리된 사랑의열매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시벽을 마련했다. 한쪽에서는 카드에 20주년 축하 메시지와 앞으로의 소망을 적어 타임캡슐에 넣는 이벤트도 진행됐다.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사랑의열매가 복지 발전 위해 큰 역할”**  
사랑의열매 홍보대사인 개그맨 박수홍씨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내빈 소개에 이어 사랑의열매 20년의 시간을 정리한 영상을 시청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사랑의열매가 지난 20년 동안 민간 부문에서 대표 모금기관으로서 우리나라 복지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감당했다”며 “사랑의열매가 지난 20년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많은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왼쪽 페이지 내빈들이 사랑의열매 20주년 기념 타임캡슐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1 행사 사회를 맡은 사랑의열매 홍보대사 개그맨 박수홍씨. 2 사랑의열매 직원들로 구성된 열매밴드가 축하 공연을 하고 있다. 3 올해 우수사원 포상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4 사랑의열매 홍보대사인 가수 박상민씨(왼쪽 첫 번째)와 배우 채시라씨(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포토월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5 사랑의열매 2030비전 선포를 하는 김연순 사무총장. 6 축하를 부르고 있는 가수 인순이씨.



바란다”고 말했다.

사랑의열매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인순이씨는 팝송 ‘fly me to the moon’을 부르며 스무 번째 생일을 축하했다. 이어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거위의 꿈’을 불러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어 20년 동안 사랑의열매와 직간접적으로 인연을 맺은 수십 명의 사회복지 관계자와 시민들의 마음을 전하는 영상편지가 상영됐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사랑의열매 2030비전 선포식이였다. 김연순 사랑의열매 사무총장은 2030년을 준비하는 사랑의열매의 미션과 비전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발표된 사랑의열매 미션은 ‘나눔으로 하나되는 행복한 세상’이며 2030비전은 ‘함께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사랑의열매’였다. 민주성과 투명성, 자율성, 신뢰와 협력으로 사랑의열매를 운영해 나눔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해 나가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4대 전략 목표와 20대 전략 과제를 수립해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성과 제시 강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전했다.

**사랑의열매 직원으로 구성된 열매밴드 열띤 공연**

이어 ‘사랑의열매, 희망의 미래를 품다’라는 주제로 타임캡슐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20주년을 상징하는 숫자 ‘20’과 빨간 사랑의열매가 어우러진 조형물이 무대 위에 오르자 참가자들은 테이블에 놓인 야광봉을 흔들며 환호했다.

이날 행사의 피날레는 사랑의열매 직원들로 구성된 열매밴드의 공연이었다. 이들은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등 노래 두 곡을 합창하며 행사장의 분위기를 돋우었다. 참가자들이 앙코르를 연호하며 열매밴드의 짧은 공연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자 빨간색 가운을 입은 열매밴드 멤버가 나타나 가수 사이의 노래 ‘챔피언’을 불러 모두를 웃게 했다.

한편, 사랑의열매는 창립을 기념해 우수 사원 포상도 진행했다. 포상자는 임지은(경영지원본부), 양호영(모금사업본부), 홍지선(나눔연구소), 권정만(서울 사랑의열매), 김수미(부산 사랑의열매), 배찬주(대구 사랑의열매), 최은영(인천 사랑의열매), 이용진(경기 사랑의열매), 이희정(충북 사랑의열매), 김보미(전남 사랑의열매) 등 10명이다. 🍎



사랑의열매 2030 비전 선포  
어떻게 나왔나?

# 넉 달간 2,000여 명 함께 숙고하고 궁리해

유난히 길고 뜨거웠던 지난여름부터 11월까지,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사랑의열매는 총 4개월에 걸쳐 새로운 비전을 찾아 열렬히 토론하고 논의하며 열정을 불태웠다. 사랑의열매의 새로운 도약과 변화를 준비하기 위해 4개월 동안 연인원 2,000여 명이 머리를 맞댔다.

## 7월 11일 첫발... 27명의 위원, 5개 소위원회 역할 분담

지난 7월 11일, 사랑의열매 대강당에서는 비전위원들을 새로이 위촉하며 앞으로의 대장정에 오르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책임을 지닌 비전위원회는 회장과 상임이사의 한시적 자문기구로서 보다 폭넓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시각을 반영할 수 있도록 내·외부 전문가 27명으로 구성되었다. 27명의 위원은 전문 분야별로 나뉘어 거버넌스, 모금, 배분, 조직 및 총괄기획의 다섯 개 소위원회에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했다.

아침 7시, 출근하기 전 고요한 아침시간이지만 세미나실 문틈으로 열띤 토론의 목소리들이 새어나왔다. 아침 일찍부터 모인 비전위원들과 직원들은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사랑의열매의 새로운 도약과 변화를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댔다.

비전위원 중에는 과거 사랑의열매 직원으로 몸담았던 위원들도 있다. 이들은 지난 20년의 발자취를 더듬고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데 있어 더욱 특별한 애정과 현실적인 조언들로 함께 했다.

사랑의열매의 정체성을 함께 논의한 거버넌스소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고민하

고,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

사랑의열매는 연중 다양한 사업을 통해 모금을 진행한다. 매년 모금액이 증가됨에 따라 그 안의 고민과 풀어야 할 숙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금소위원들이 모였다. 더 많은 사람이 쉽고 친근하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부자의 성금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사회적으로 성과를 제시하는 일은 사랑의열매가 더욱 갖춰나가야 할 사회적 역할이었다.

배분소위원회는 점점 광범위해지는 복지수요와 공급 및 다양한 환경변화에 따라 배분사업의 범주를 재설정하고 사회적 의제를 재구조화하는 데 주력했고, 조직소위원회는 조직구조와 인력관리 등 조직운영 개선점 도출에 대해 논의하며 사랑의열매 내외부 역량을 결합해 갔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멀게만 보였던 조각들이 모이고 맞춰져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총괄기획 소위원회



각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통합했다. 세부운영절차를 마련하고, 비전수립을 위한 정체성 및 핵심 가치, 비전 및 전략체계 등을 총괄하며 정리해 갔다.

## 권역별 워크숍 통해 정체성 공감하고 미래 논의

2박 3일 동안 1,000km가 넘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새로운 비전을 찾아가는 여정 속에 전국 직원들의 의견들도 함께 담았다. 권역별로 모여 함께한 직원 워크숍의 첫 분위기는 많이 어색했다. 워크숍 프로그램 중 '의자'를 현재의 비전으로 생각하고 나와 비전의 거리를 재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비전에 등돌려 선 직원도 있었고, 가깝지만 바라만 보고 있는 직원도 있었으며, 아예 떨쳐감치 떨어져 있는 직원들도 있었다. 새로운 비전을 수립함에 있어 우리의 의견이 얼마나 모일 수 있을지, 우리가 이를 수 있는 것은 무엇일지 염려스러운 마음이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사랑의열매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직원들은 우리의 정체성과 우선과제에 대해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술술 풀어나갔다. 직원들의 이야기는 공통된 점이 많았으며 우리의 역할, 그리고 실천해야 할 과제들에 모두 공감했다. 모든 직원이 나누는 이야기들은 새로운 비전을 수립하는 데 좋은 자양분이 되었다.

20년 역사와 함께해 온 사무처장·부서장들도 직원들의 비전 워크숍 피드백을 공유하며 공감,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며

그간의 시간들을 되돌아보았다.

직원뿐만 아니라 기부자·사회복지현장·분과실행위원들도 참여 비전위원과 직원들뿐만 아니라, 20년 동안 사랑의열매와 함께 길을 걸어온 기부자 및 배분현장, 분과실행위원들과도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했다. 외부에서 바라보는 사랑의열매의 아쉬운 점을 꼬집기도 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제안하며 든든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었다.

9월에는 사회복지 현장과 더욱 교감하고자 토론의 장도 마련했다. 공청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회복지 현장의 실무자들이 우리와 함께 고민해 줄지, 새로운 방향을 찾는 데 있어 힘을 실어줄지 한편으론 걱정이 앞서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걱정이 무색할 만큼, 1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하여 관심을 가져주었고, 무엇보다 현장과 밀접하게 관련된 배분영역에 대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에 더욱 의미 있었다.

이렇게 진행된 대장정은 11월 12일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로 마무리되었다. 새로운 미션과 비전, 운영원리를 정하고 전략체계를 재정비하며 진행된 4개월 동안 연인원 2,000여 명이 참여하였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많은 사람과 다양하게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비전이 선포된 만큼, 사랑의열매의 여러 사업에 적절히 녹아들도록 잘 실행해 나가고자 한다. 🍀

### 한시준 울산 사랑의열매 신임회장

## “풀뿌리 기부문화 활성화에 집중”



Profile | 한시준 회장은 정형외과 전문의로 뉴스타트 병원 이사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부산대학교 의과 대학을 졸업했으며 부산대와 가톨릭대, 인제대 외과교수를 역임했다. 한국로타리 총재단 의장과 민주평통 울산부위원장을 지냈고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다.

#### Q. 사랑의열매와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됐나?

A. “나눔에 대한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서 오랜 기간 다양한 단체를 통해 봉사를 해왔다. 사랑의열매와 직접적으로 만나게 된 것은 2015년 초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부터 인연을 맺게 되었다.”

#### Q. 회장직을 수락하게 된 계기는?

A. “평생을 의사로서, 로타리 회원으로 봉사를 해오며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방법으로 봉사를 하고 싶은 마음과 울산의 복지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 회장직을 맡게 되었다.”

#### Q. 울산 사랑의열매 회장으로서 임기 내에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

A. “최근에 새롭게 시작한 나눔리더·나눔리더스클럽을 시작

으로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나눔천사, 착한일터, 곧 3,000호를 앞두고 있는 착한가게와 아너 소사이어티 100호 달성을 목표로 기존 모금참여 캠페인을 활성화할 것이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배분절차들이 잘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Q. 울산의 다양한 복지 지원 분야 중 특별히 관심 가는 부분은?

A. “아무래도 의사로 평생 활동하다 보니 저소득층이나 난치병 아이들을 위한 의료지원에 관심이 간다.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시기를 놓쳐 건강상태가 더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 Q. 나눔으로 행복한 울산이 되기 위한 계획이 있다면?

A. “울산은 기업도시의 이미지가 짙은 만큼 대기업의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최근 주력사업이 쇠퇴하며 모금사업이 더욱 어려워진 현실이기에, 풀뿌리 기부문화 활성화에 집중하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 울산 지역이 빈곤·소외·질병이라는 사회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Q. <사랑의열매>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A. “나눔은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의 희망이 되어줄 아름다운 동행이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며, 그 기회를 소중히 여겨 삶의 일부분에 따뜻한 기억으로 간직했으면 좋겠다. 사랑의열매로 아름답고 행복한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 김남식 제주 사랑의열매 신임회장

## “도민들이 나눔의 행복 느낄 수 있게 노력”



Profile | 김남식 회장은 (주)청동환경 대표를 맡고 있다. 제주대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제주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했다. 2016년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하고 제주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부회장을 역임했다.

#### Q. 사랑의열매와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됐나?

A. “2007년 9월 첫 기부를 시작으로 인연을 맺어 착한가게,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해 나눔에 동참하고 있다. 그리고 2014년 4월부터 제주 사랑의열매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다가 지난 10월 31일 회장에 취임하게 됐다.”

#### Q. 회장직을 수락하게 된 계기는?

A. “어린 시절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부자가 되어서 어머니를 편안히 모시고 싶고, 어려운 사람들도 돕고 싶다’ 그런 마음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지키고 싶어 회장직을 수락했다. 임기 동안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겠다.”

#### Q. 제주 사랑의열매 회장으로서 임기 내에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

A. “어떤 성과를 내기보다 나눔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행복을 나누다 보면 다시 그 행복은 돌고 돌아 자신에게 온다는 믿음이 있다. 그런 행복을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Q. 제주의 다양한 복지 지원 분야 중 특별히 관심 가는 부분은?

A. “특정 분야를 선택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굳이 선택해야 한다면 아동 분야다. 아동은 생애주기 보았을 때 가장 처음, 시작점에 있기 때문이다. 한창 꿈 많고 뛰든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어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라 그들의 삶이 윤택

해질 수 있다면 그보다 뿌듯한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한다.”

#### Q. 나눔으로 행복한 제주도가 되기 위한 계획이 있다면?

A. “나눔은 풀뿌리 모금에서 시작한다. 전국 17개 지회 중 1인당 모금액이 가장 많은 이유도 도민들의 참여가 많기 때문이다. 잘하는 것은 더 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부자 한 분 한 분과 소통하고 협력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이 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Q. <사랑의열매>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A. “나눔으로 행복한 제주를 만들고 있는 기부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부자님 덕분에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달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사랑의열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희망2019나눔캠페인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포토뉴스 ①

글 한상현 사진 양수열



포토뉴스 ②

글 한상현 사진 이신영



## 〈냉장고를 부탁해〉의 이연복 셰프 사랑의열매 홍보대사를 부탁해

국민 셰프 이연복씨가 지난 10월 31일 사랑의열매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이연복 셰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 지하 대강당에서 예종석 사랑의열매 회장과 김연순 사랑의열매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패를 전달받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홍보대사가 된 이연복 셰프는 “매년 추석과 설 명절에 쌀 50포를 사랑의열매에 전하면서 인연이 되었다”며 “홍보대사 제안이 왔을 때 나눔에 많이 참여할수록 좋은 것이기에 흔쾌히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 셰프는 “고양이들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유기견이 밥도 못 먹고 돌아다니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팠다”며 “방송에서 결식아동이나 쪽방촌 홀어르신을 보면서 생명이 소중한 것이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봉사활동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연복 셰프는 “나눔이란 좋은 세상 만들기라고 생각한다”며 “주위를 돌아보면 소외된 이웃들이 많은데, 우리가 모두 함께 나누어야 좋은 세상이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연복 셰프는 평소 저소득 결식아동을 위한 기부활동, 유기견 보호운동 등 나눔활동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지난 11월 27일 열린 사랑의열매 ‘토닥토닥 토크콘서트’ 연사로 참여해 2030세대에 나눔의 행복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

## 사랑의열매 20년, 평가지원단 15년 “평가지원단과 함께한 행복한 동행”

사랑의열매 배분사업 평가지원단 해단식과 신입단원 위촉식이 지난 11월 14일 사랑의열매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배분사업 평가지원단은 배분사업 현장 곳곳을 누비며 국민이 모아준 성금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평가하는 전문가들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올해로 임기를 마치는 단원 37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활동을 시작하는 15명의 신입단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배분사업 평가지원단 단장으로 활동한 최미경 대청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2003년 활동을 시작할 때 나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현장을 평가한다고 생각했는데 15년이 지나서 보니 내가 배우고 얻은 게 더 많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새롭게 위촉되는 평가지원단원들에게 “평가지원단은 현장에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사람들인 만큼 자부심을 갖고 활동하면 좋겠다”며 “평가 기준에 맞춰 기본에 충실한 활동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기 평가지원단으로 활동한 이권일 공주시노인종합복지관 관장은 “현장의 기반을 잘 다지는 것이 우리의 임무였다면 신입 평가지원단은 이제 꽃 피고 열매 맺는 일을 잘 담당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평가지원단 부단장으로 활동하는 정홍채 강남종합사회복지관 부장은 “10년 이상 현장에서 열정을 갖고 활동하신 선배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현장과 함께 소통하고 현장의 눈높이에 맞게 세심히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

# 하나금융그룹

## 함께 나누고 함께 성장하고 하나의 꿈을 향해 달려요

더 편리한 삶을 위해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의 혁신을 이끌어 온 하나금융그룹.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소외된 이웃을 위한 교육에 힘쓰고 있다. 단순한 지원이 아닌 ‘교육’을 통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하나금융그룹의 꿈을 만났다.



### 교육을 통해 밝은 미래를 실현하게끔 전방위 지원

프라이빗뱅킹 도입, 신용카드 발급, 이동식 영업점 & 야간금융센터 개점, 365자동화코너 시행, 스마트폰 뱅킹 오픈, 외국어 지원 ‘외환글로벌뱅킹 서비스’ 시행 등은 KEB하나은행이 국내 최초로 시작한 일들이다. 더 편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금융 시스템을 혁신해 온 하나금융그룹. 오늘 심은 건강한 아이디어가 새로운 가치로 돌아올 것을 알기에 아끼지 않은 노력이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해 오늘의 ‘교육’ 씨앗을 심는 하나금융그룹의 사회공헌활동도 마찬가지다.

이 씨앗들이 건전한 정체성이라는 싹을 틔워,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따뜻한 애정과 꾸준한 노력으로 돕고 있다.

하나금융그룹은 이를 위해 6대 중점 분야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육지원사업, 통일 인재 육성을 위한 ‘통일시대 준비’,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금융’, 지역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공익’, Hana Happy Class를 통한 ‘글로벌 사회공헌’에 ‘환경’까지 행복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국공립·직장 어린이집 건립

저출산 극복과 워킹맘 육아 부담 달게  
2020년까지 전국에 총 100개 오픈 추진

최근 일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비리가 불거지면서 수많은 학부모의 공분을 샀다. 특히 아이와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없는 일하는 엄마들이 받은 마음의 상처는 더 컸다. 가정을 위해 일을 병행한 결과가 오히려 소중한 아이에게 상처를 준 것은 아닌지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꼈던 것. 그러나 아이가 다니는 보육시설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다시 직장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당장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돌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환경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우수한 환경을 가진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하나금융그룹의 노력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나금융그룹은 국가적 문제로 떠오른 저출산 문제 해결에 일조하고, 여성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0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90개와 직장어린이집 10개 등 총 100개의 어린이집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의 일-가정 양립 및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그룹 임직원 및 지역사회에 대한 보육 지원은 갑작스럽게 이뤄진 일이 아니다. 2003년 한국IBM, 네이버, 대교 등과 공동조합을 결성하여 서초, 분당, 일산, 수지에 직장어린이집 4개소를 개원하였으며, 2008년 국내 최초 민자유치 보육시설인 ‘하나푸르니 신길어린이집’을 시작으로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6개를 포함 총 12개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하나금융그룹 푸르니 어린이집의 경우 우수한 환경과 질 높은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영유아 자녀를 둔 임직원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관계사 KEB하나은행은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출근 시각을 1시간 늦추되 퇴근 시각 및 임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초등학교 입학자녀 안심돌봄 프로그램을 시중은행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하나금융그룹은 일하는 여성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펼쳐왔다.

### 1만 명의 아동에게 기회... 5,500여 명의 고용효과도

하나금융그룹이 추진하는 이번 보육사업 중 국공립어린이집 90곳은 민자유치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건립된다. 나머지 직장어린이집 10곳은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건립을 통해, 중소기업과 상생하고



서로 배려하는 문화, 휴머니티를 기반으로 한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기업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약9,500여 명의 아동에게 보육기회를 제공할 어린이집이 비수도권 지역 위주로 건립된다는 것은 반가운 점이다. 하나금융그룹은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는 물론 부모들의 국공립·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선호 충족 및 사업장 내 보육시설 마련이 어려운

중소기업 임직원과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보육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수적인 기대효과도 상당하다. 총 5,500여 명의 직간접 고용효과 창출과 양육 여성의 경력단절 최소화, 조부모 세대의 삶의 질 개선 등의 효과가 동반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 특히 중소기업 직원들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어 저출산 문제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이번 하나금융그룹의 보육 지원 사업을 계기로 향후 기업과 사회의 상생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이 범사회적으로 확산되기를 희망한다”는 바람을 밝혔다.

### 씨드스쿨(Seed School)

사춘기 청소년 심리정서 돌보고 진로멘토링  
자아 찾고 자존감도 회복... 미래설계 도움

사춘기 동안 아이들은 다양한 가치관의 혼란을 경험한다. 정서적으로 힘든 시간이지만 부모의 따뜻한 관심과 보살핌을 받은 아이들은 자신만의 가치관을 확립해 가며, 밝은 미래를 목표로 큰 이탈 없이 충실한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취약계층 청소년에게는 사춘기가 유난히 더 외롭고 혹독한 시간이 된다.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환경에 대한 원망과 미래에 대한 막연함을 느끼며 꿈과 준비 없이 시간을 허비하기 십상이다.

하나금융그룹은 사랑의열매 지정기탁 사업으로 매년 1억 원을 들여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용기 있게 미래를 개척하고, 성숙한 시민으로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의 진로 교육을 진행하는 씨드스쿨을 지원하고 있다. 사단법인 대한민국교육봉사단이 운영하는 씨드스쿨은 150여 명의 청소년과 건전한 대학 청년 멘토가 1년



동안 학기 중 주 1회 3시간씩 함께하는 방과 후 활동으로 청소년을 지지, 응원하고, 나아가 진로 선택과 꿈을 찾는 과정을 연습할 수 있는 전문 프로그램이다.

1학기에 진행되는 상상코칭 프로그램에서는 스스로 자아를 찾아갈 수 있는 내적 사색 활동을 통해 정체성을 발견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활동이 실시된다. 2학기에 진행되는 비전코칭

프로그램에서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훈련의 시간을 갖는다. 꿈을 이루는 태도, 꿈을 찾아가는 과정을 배울 수 있는 꿈 프로젝트 활동이 진행된다. 학기별 주말에는 공동체 활동과 씨드시네마 활동, 나눔 장터, 공연관람, 대학탐방활동 등 사회성을 기르는 공동체 활동이나 문화체험 행사를 통해 마음을 채우는 시간도 경험한다.

### ‘꿈’이라는 목표가 생긴 아이들의 놀라운 변화

씨드스쿨은 꿈 프로젝트 활동 공모를 통해 선발된 60명의 아이와 참가 봉사자들이 함께하는 1박 2일 비전캠프로 마무리된다. 지난 1년간 자신의 꿈을 찾고 한 발 더 다가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온 아이들에게 주어진 상 같은 시간. 아이들은 즐거운 여행으로 잊지 못할 추억을 쌓는다. 그리고 꿈 프로젝트 시상 및 발표의 시간을 통해 아이들은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씨드스쿨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꿈을 꾸고 이뤄갈 것을 다짐한다.

지난해 씨드스쿨에 참가했던 규빈이는 춤출 때 외에는 누군가의 주목을 받거나 어떤 생각이나 입장을 이야기하기 어려워하던 자신감 없던 아이였다. 그러다 씨드스쿨을 만나 꿈을 발견하고, 조금씩 자신을 바꾼 결과 여러 사람 앞에서도 당당히 나설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다.

“제가 잘하는 것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저 자신이 좀 더 나아 보이고 자랑스러워졌어요. 재촉하지 않고 옆에서 지켜봐 주시며 할 수 있다는 용기를 북돋워 준 선생님이 큰 힘이 됐어요. 가장 좋았던 건 비전코칭 과정에서 안무가와 직접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안무가가 되기 위해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고, 끊임없이 노력할 거예요.”

낮은 자존감에 위축된 모습으로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없었던 아이들에게 씨드스쿨은 웃음 가득한 꿈과 미래를 선물하고 있다.

### 시각장애인 관현맹인전통예술단 지원

국내 외딴 섬에서 해외까지 감동 공연 선사  
우수한 우리 문화 알리고 장애인 인식 개선도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의 현대초등학교에서 관현맹인전통예술단 공연이 있던 날. 생소한 국악 공연에 낯설어하기도 잠시, 흥겨운 가락에 어깨가 들쩍일 정도로 신이 났던 6학년 이준이는 공연 후 예술단 홈페이지(oh-gukak.kr)에 긴 후기를 남겼다.

“시골에 있는 우리 학교에 찾아와 공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각 장애가 있어도 비장애인보다 훨씬 잘 연주할 수 있다는 걸 이번 공연을 통해 알았습니다. 앞으로 제 분야에서 장애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도록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의 공연이 있던 다른 날도 마찬가지다. 자주 접하지 못했던 우리 국악의 아름다움과 보이지 않는 장애를 예술로 승화시킨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이 전하는 생생하고 진한 감동에 대한 찬사와 감사, 그리고 응원의 글이 줄을 잇는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소리에 곁집이 배어 있는 땀과 열정이 커다란 울림이 되어 큰 감동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 전국 초중고등학교 찾아가 공연... 민간 외교관 역할도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2011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은 3년 전부터 하나금융그룹의 지원을 통해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과 시각장애인의 뛰어난 예술성을 알리기 위해 초중고등학교를 찾아가는 공연을 펼치고 있다. 장애 이해 교육과 체험 후 예술단의 공연을 본 학생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장애에 대한 인식을 크게 바꿀 수 있었다.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의 소리는 서울의 예술 꿈나무들이 있는 예술학교부터 저 멀리 흑산도, 제주도, 경북 봉화 등 문화 소외 지역에 있는 학교까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찾아가 감동을 전한다. 특히 청주맹학교와 대전맹학교에서 진행한 공연은 학생들에게 장애가 있어도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심어주었다.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은 ‘관현맹인, 실크로드에서 국악을 울린다’라는 주제로 지난 10월 과거 동서양 정치·무역·문화 교류의 맥이었던 실크로드의 중심에 위치한 우즈베키스탄에서 ‘소글롬 아블로드 우춘’의 초청을 받아 민간 외교관으로서 공연을 했다. 우즈베크 최고의 극장인 국립나보이극장과 티슈켄트 국립맹학교, 안기울시 제70 특수학교, 한국교육원 등에서 진행된 이번 순회공연으로 한국 시각장애인 예술가들의 예술성과 우리나라 관현맹인 제도의 역사적 우수성을 알렸다. 또한 80년 전 러시아 연해주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 강제 이주된 고려인 1세대들이 사는 아리랑요양원을 찾아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풀어주었다.



### 트윅클 투게더 프로젝트

캄보디아 다문화가정의 모국 방문 지원  
가족 유대감 높이고 자녀에게 정체성 갖게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홀로 두 아이를 책임지게 된 캄보디아 결혼이주여성 공성주(가명)씨.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 캄보디아 다문화가정의 모국 방문 지원 트윅클 투게더 프로젝트에 참가하게 됐다. 결혼 10년 여 만에 아이들과 함께 찾은 모국 캄보디아에서 친정 식

구들과 함께 마음껏 대화하며 속내를 풀어낼 수 있었고, 그들의 위로로 새롭게 살아갈 힘도 얻게 되었다. 4년 전 캄보디아 결혼이주여성 펜 씨와 결혼한 장진수(가명)씨도 프로젝트 참가 후 부부 사이가 전보다 더 좋아졌다. 아내의 친정을 방문했을 때 낯선 문화와 말이 통하지 않는 답답함을 직접 체험한 것이다. 단 며칠도 힘들었던 그는

그제야 아내가 한국에서 겪었을 어려움과 외로움을 깊이 이해하게 됐고, 고마움과 미안함이 들었다.

하나금융그룹이 사랑의열매 지정기탁 사업으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총 4억 5,000만 원을 지원한 재단법인 한국여성재단의 트윅클 투게더 프로젝트는 캄보디아 출신 다문화가정의 모국 방문 지원 사업이다.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결혼 후 친정을 방문하지 못하는 캄보디아 결혼이주여성들의 모국 방문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가정 내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관계의 강화와 유대감을 증가시키며, 자녀의 긍정적 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주고 있다.

### 전문가들이 가족·아내·남편 위한 솔루션도 제공

우리나라 국제결혼 건수가 2016년 기준 전체 결혼 건수의 약 7.7%에 달할 정도로 늘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복지 지원도 늘었다. 그러나 국내 캄보디아 결혼이주여성은 중국이나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에 비해 수가 적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여타 다문화가정에 비해 경제적 상황도 열악하고 문화적 차이도 커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고민과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 및 네트워크가 부족하다. 그 결과 외부적 도움을 받지 못하고 가족 해체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는 경우도 많다.

트윅클 투게더 프로젝트는 캄보디아 방문 지원은 물론 가족, 아내, 남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부 사이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양국 가족의 이해를 도와 가족 화합의 기회를 갖게 된다. 또한 함께 참여한 다른 가족들과의 네트워크가 생겨 한국에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참여한 다문화가정의 변화는 부부 관계 개선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부모의 가치관과 생활 태도가 서로 다른 이중문화 속에서 성장하며 정체성과 가치관의 혼란을 겪던 아이의 삶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주고 있다. 중도입국 자녀로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채우빈(가명) 군도 가족과 함께 캄보디아에 다녀온 뒤로 태도가 크게 바뀌었다. 고향 친구 중 일부가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을 보고는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의 감사함을 깨달았고,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중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자신의 장점을 깨달아 통역 관련 꿈을 꾸게 되었다.

모국 방문 프로그램에서 배운, 며칠의 시간이 가져온 놀라운 변화. 수많은 시간 동안 벌어졌던 가족의 틈이 메워지고, 그 위에 새로운 사랑이 쌓여간다. 그 행복들이 바뀌낼 가족과 아이들의 미래. 하나금융그룹이 우리 사회에 선물하고 싶은 미래가 아닐까. 🍀

# 외로운 아이들과 2030세대 마음을 읽다, 마음을 잇다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방임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제개발 NGO 기아대책의 '아름스굿프렌즈'. 그 활동이 참가한 봉사자들 맘속에 내재되어 있던 약자에 대한 관심을 깨우고, 마음 나눔의 행동을 이끌어내고 있다. 아이들의 미래가 더 밝게 빛날 그 변화의 시작을 만나본다.



방임 아동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 방임 아동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 하영주 기아대책 아동복지팀 팀장



아이들에게 전해 줄 팔찌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 봉사 참가자들



방임아동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전해주었던 개통령 강형욱 대표의 토크 콘서트

## 국제개발 NGO 기아대책의 '아름스굿프렌즈'

"학교 다녀왔습니다."

현관문을 열며 품었던 작은 기대는 익숙한 실망으로 돌아온다. 환한 불빛과 포근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맞아주는 부모의 모습 대신 어둡고 차가운 실내에 적막한 공기만이 감돌 뿐. 어깨 멘 가방이 더 무겁게 느껴진다.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37%, 3명 중 1명은 혼자 시간을 보내는 나홀로 아동이다. 한부모가정일 경우는 63.7%를 차지한다. 야간 비행이나 탈선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야간 방임은 전체 방임의 67.3%를 기록해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방임 아동은 보호자의 생계유지와 부재에 의한 결과로 특히 집이 가난할수록 많은 것이 현실이다. 매일 반복되는 방임 아동의 외로움은 N포세대의 것과 많이 닮아 있다. 현실의 장벽과 1인 가구의 증가로 사회적, 정서적으로 단절된 이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는 답답한 현실을 쉽게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 방임 아동 위한 마음나눔 활동으로 좋은 친구 약속

신한카드가 후원하고 사랑의열매가 지원하는 기아대책의 '아름스굿프렌즈'는 우리 사회에서 외로운 두 세대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 사회를 변화시키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봉사활동 참여가 저조한 2030세대를 대상으로 방임 아동 실태 및 아동 인권에 관한 나눔을 교육하고 봉사자들이 활동으로 만든 정서지원물품을 아동에게 전달하는 활동이다. 이를 통해 방임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서적 지지를 높이고 있다. 이번 사업은 기아대책 산하 지역아동센터의 '별빛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들이 대상이다.

올해로 3년째를 맞고 있는 '아름스굿프렌즈'는 지난 9월 8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읽기' '잇기' '담기'라는 주제로 진행된 행사에는 방임 아동의 든든한 정서적 지지자로 나선 2030세대 총 220명이 참가했다.

행사의 시작은 아동 인권의 현실을 전하는 '읽기' 시간. 참가자들은 다양한 뉴스 사례와 전문가의 설명을 통한 아동 방임의

실태에 크게 놀라며 마음 아파했다. 참가자들은 "앞으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 "호프집에 아이를 데려가는 것이 정서적 학대라는 것을 알고 놀랐다" "기회가 된다면 방임 아동을 보살피는 봉사를 하고 싶다"와 같은 반응을 보이며, 아동 권리에 대해 많은 것을 깨닫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 DIY 팔찌와 편지 담아 300여 아동에게 전달

이어진 '잇기' 시간에는 연약하고 관심이 필요한 반려견처럼 사랑하는 아이 역시 관심과 돌봄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반려견훈련사 강형욱 대표의 '생명존중과 나눔의 실천' 토크 콘서트가 진행됐다. "당신은 누군가를 10시간 동안 기다린 적이 있나요?" 전에는 크게 생각해 보지 못했던 아이들이 겪는 상황은 짧지만 참가자들의 마음에 깊숙이 새겨졌다.

마지막 마음 나눔의 실천이 되어준 '담기' 시간. 참가자들은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위한 DIY 팔찌 만들기에 몰두했다. 금손은 아니지만 꼼꼼하게 팔찌를 만들고, 편지를 쓰며 한 자 한 자에 마음을 눌러 담았다. 그렇게 완성된 팔찌와 편지, 토닥토닥 하루 일기장과 색연필과 컬러링 북세트, '점 The Dot'을 담은 선물박스는 지역아동센터인 기아대책행복한홈스쿨의 야간보호 프로그램 '별빛학교' 운영 센터 21개소 300여 명의 아동에게 전달되었다.

"팔찌가 제 눈에 쪽 들어왔어요." 《점》이라는 책 덕분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주신 선물로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재미있게 놀 수 있어 좋았습니다." 참가자들의 마음에 화답하듯 아이들이 보내온 감사의 편지들. 부모와 어른들의 관심에서 소외되어 외로움을 느끼던 아이의 마음을 채운 작은 온기는 다시 현실의 벽 앞에 힘 들어하던 2030 N포세대의 외로움을 채웠다. 작은 마음들이 모여 서로에게 큰 위안과 힘이 되어주었던 행복한 경험, 바로 '아름스굿프렌즈'가 우리 사회에 주고 싶은 선물이 아닐까. 🌸



## "방임에 대한 고정관념 탈피 남을 위해 행동하는 계기로" 이진호 기아대책 사회공헌협력팀 간사

"아름스굿프렌즈 참가자들을 보면 아동 방임을 단순한 '방치'라고만 생각한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교육을 통해 정서적, 문화적, 육체적, 사회적으로도 아동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을 새롭게 느끼게 되죠. 방임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넓어지는 것, 그런 변화가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참가자 중에는 한 번의 관심이 큰 도움이 될까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사랑받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작은 관심과 배려, 그리고 나눔이, 이 아이들의 상황을 모두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큰 밑거름이 되고, 사회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게 되죠. 그렇게 자란 아이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성인으로 성장해요. 당장의 변화보다 조금 더 멀리 미래를 내다본다면 지금 우리의 관심은 아이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될 겁니다."



손수 만든 팔찌와 쓴 편지, 일기장, 책, 컬러링 북세트가 든 선물키트를 들고 있는 참가자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삼중주 기업으로 세계 최고 품질의 고려삼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KGC인삼공사는 1899년 대한제국 공내부 삼정과 설치 이후 119년간 고려삼 전통을 지켜가고 있다. 1908년 홍삼전매법이 제정·공포되면서 국가 전매사업으로 확정됐으며, 이에 따라 인삼 재배 및 제조 관리에 근대적 경영 기법이 도입됐다. 전매청, 한국담배인삼공사 등의 역사적 변천을 거친 뒤, 1999년 KGC인삼공사가 설립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 맞춤형 봉사단·펀드 조성 홍삼만큼 건강한 이웃사랑

2000년 초반부터 이어진 나눔과 봉사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끊기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봉사단 숫자와 참여하는 직원들도 늘었다. '나눔과 봉사는 전염되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KGC인삼공사 얘기다.

KGC인삼공사는 고종 36년(1899년) 인삼과 홍삼 제조의 국가 관리를 위해 설치된 공내부 삼정과 이후, 무려 119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 인삼중주 기업으로서 전통과 명품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계약 재배를 통한 체계적 경작 관리 시스템으로 청정 원료 인삼을 생산하고, 식품 이력 관리 및 엄격한 품질 관리 시스템을 통해 제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R&D 연구개발을 통해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KGC인삼공사는 위대한 문화유산인 고려인삼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KGC인삼공사는 홍삼 이외 건식소재 다양화, 건강한 아름다움을 위한 뷰티 사업 확장, 고객 편의성을 높인 신유통 채널 구축을 통해 종합 H&B 기업으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는 중이다.

## 소규모 복지기관·취약계층 어린이 의료비 지원

건강한 제품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KGC인삼공사는 꾸준히 나눔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8년 10월 현재 사랑의 열매에 총 6억 원가량에 달하는 기부금을 전달해 온 KGC인삼공사는 전국 소규모 사회복지기관 지원 및 취약계층 어린이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을 진행 중인데, 특히 대규모 공장이 자리한 부여 지역 저소득층 자녀 결연 지원과 저소득가정 주거 환경 개선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사회적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

KGC인삼공사 커뮤니케이션실 홍보3부 배준호 과장은 "임직원들이 본인이 원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선택해 기부하는데 사랑의열매의 경우 공신력이 높아 후원하는 직원들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전했다.

'사회에 기여하는 건강한 기업' '인류가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건강한 문화 조성'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한 건강 교육, 건강 나눔,

건강 봉사'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는 KGC인삼공사. 경작 활동 자금 무이자 대출, 농기계, 묘삼 등 지원을 통해 인삼 생산 경작 기반 유지 발전 및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탁구, 배드민턴, 프로농구, 프로배구 등 스포츠단을 운영함으로써 보다 윤택하고 풍요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에 신경을 쓰고 있다.

## '정관장사회봉사단' '홍이장군봉사단' 운영도

또한 글로벌 종합건강기업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창업 111주년을 맞은 2010년을 '사회공헌활동 본격 전개의 원년'으로 삼고 기존 사회봉사단을 재정비한 '정관장사회봉사단'을 출범시킨 데 이어 중고등학생들에게 나눔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아이페이스 봉사단', 삼성떡프린스장애인복지시설과 함께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아동과 가족들이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홍이장군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눈길을 끄는 것은 2001년 부여 고려인삼창 직원들의 자발적인 기부 모금으로 시작한 정관장 펀드다. 2011년부터 회사가 함께하면서 더욱 풍성한 나눔을 실천하게 된 정관장 펀드는 임직원들의 자발적 사랑이 모여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웃들을 돕는 데 소중하게 쓰이고 있다.

배준호 과장은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중 원치 환자와 치료 중인 환자를 결연해 멘토링 역할을 통해 심리적, 정서적 지원을 해주는 환자 멘토링 프로그램과 매 분기 홍삼 제품을 빨간 리본이 그려진 건강 선물상자에 담아 흠어들신과 장애인 시설에 전달하는 건강 기부 문화는 KGC인삼공사만의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렇게 회사에서 경험한 나눔과 봉사가 직원들 일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직원들 개개인이 나누고 봉사하는 일들이 많아졌다"고 전했다. ❀



착한가게가 있는 풍경\_서울 미술관 나들이

글 사진 조혜원(여행작가)

# 가을을 보내며 겨울을 그린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다면 미술관을 가보라.  
흥청망청 들떠 있는 연말이 아니라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미술작품을 감상하며  
격이 다른 송년회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

서울숲 내에 있는  
메타세쿼이아길

## 100여 년 전 대한제국을 만나다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덕수궁미술관은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문득 찾아가기 좋은 곳이다. 도심 한복판에서 자연과 여유로움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언제나 마음의 쉼이 필요할 때 불쑥 찾아가도 넉넉하게 받아준다.

덕수궁 입구를 들어서서는 순간 공기의 흐름이 달라진다. 하늘이 넓어지고 발걸음은 느려진다. 키 큰 나무 아래 휴길을 자근자근 밟으며 걸으면 심신이 안정된다. 그렇게 천천히 걸어 안쪽으로 들어가면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이 나온다.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에선 '대한제국의 미술 빛의 길'을 꿈꾸다' 전시가 2019년 2월 6일까지 열린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시기는 대한제국이 멸망하고 일제강점기가 시작됐던 때로 암흑기로 여겨졌다. 혼란한 시대, 서구와 일본의 문화를 무차별적으로 수용했으며, 우리 미술의 전통은 쇠퇴해 갔다. 그러나 대한제국은 과거 미술 전통은 지키면서 외부의 새로운 요소들을 받아들여 새로운 예술로 나아가고 있었다. 고종의 의향을 잘 반영한 궁중미술이 대표적이다. 궁중회화에서 보이는 다양한 표현방식의 변화, 사진이라는 새로운 장르의 등장과 부상, 이로 인한 시각 문화의 변동 등을 엿볼 수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전경



덕수궁을 관람하는 나들이객들



나들이 나온 가족이 덕수궁 경내를 산책하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전경



## 혁명적인 영화를 전시로 재구성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덕수궁에서 나와 경복궁 방향으로 조금만 산책하면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다. 서울관에선 영화와 세계에 대한 사유를 바탕으로 한 혁명적인 영화를 전시로 재구성해 소개하는 프로젝트 전시가 진행되고 있다.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했던 현대영화사의 중요 작가 작품을 전시하는 프로젝트는 올해로 세 번째다. 2015년에는 '필립 가렐, 찬란한 절망', 2017년에는 '요나스 메카스-찰나, 힐끗, 돌아보다'가 전시됐다. 올해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하룬 파로키-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이다. 독일의 영화감독이자 미디어 아티스트인 하룬 파로키(1944~2014)는 세계를 지배하는 이미지의 작용 방식과 함께 미디어와 산업기술이 인간에게 미치는 폭력성을 비판했다. 이번 개인전은 이미지로 구현된 매체 실험을 통해 노동, 전쟁, 테크놀로지의 이면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작품으로 구성된다.



**대를 이어 사랑의열매에 기부하는 미술관 옆 착한가게 '배꼽시계'**

미술관에서 문화 충전을 하고, 배를 채울 시간. 갤러리와 미술관이 많이 모여 있는 삼청동의 골목길 안쪽에 작은 식당 '배꼽시계'가 자리하고 있다. 오픈한 지 2년 남짓이지만 입소문이 나서 식사 시간이 되면 손님들이 몰려 골목 끝까지 줄이 이어진다. 인기의 비결은 음식에 들어 있는 정성과 맛이다. 메뉴는 단순하다. 가장 기본적이고 언제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생선구이, 불고기정식, 제육정식이다. 제철 재료로 만든 4가지 반찬에 생선조림과 쌈을 기본으로 낸다. 김치부터 시작해 모든 반찬을 직접 만들어 손님이 없는 시간에도 재료를 손질하느라 쉴 틈이 없단다. 배꼽시계는 아들 박강진 대표가 어머니 김미정 대표와 함께 운영한다. 김미정 대표는 종로구에 60년 넘게 살면서 삼청동에서 유명한 떡볶이 가게 '먹쉬드나'를 운영하며 10년 넘게 사랑의열매에 기부를 해왔다. 새 가게를 준비하며 기부하는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이어졌다. 미술관 가는 길은 여전히 정겹다. 아직도 집과 집이 어깨를 맞대고 있으며, 이웃 간의 정이 넘치고, 109년 된 교회와 60년 된 정육점이 남아 있는 동네. 팔판동을 거닐어 보라고 추천해 주는 김미정 대표의 안내를 따라 골목을 걸어 미술관으로 향했다.

**파격 넘치는 설치작품과 살아 있는 골목 대림미술관과 동네골목**

오픈 이래 항상 핫 이슈를 불러일으키는 대림미술관. 이번 전시는 제목도 다정하다. '나는 코코카피탄, 오늘을 살아가는 너에게'이다. 구찌, 보그 등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 및 잡지와 협업으로 유명한 코코 카피탄의 첫 개인전이다. 이번 전시에선 패션 브랜드와의 협업 작품뿐 아니라 작가의 감정이 담긴 사진, 페인팅, 핸드라이팅, 영상, 설치 등 총 150여 점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총별로 주제를 달리해 작가의 다양한 작품세계를 엿볼 수 있다. 그중 압권은 4층이다. 스페인 올림픽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선수들을 촬영한 사진과 수영장을 옮겨 놓은 듯한 설치작품, 8m의 대형 핸드라이팅 작품이 관람객을 맞는다.

전시를 보고 난 후 자연스럽게 통의동 골목길을 걸었다. 통의동은 목적지 없이 골목길을 걷기만 해도 좋다. 키 낮은 집과 개성이 뚜렷한 상점들, 한복을 입고 특별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커플들이 들뜬 휴일의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대림미술관 설치작품



대림미술관으로 가는 길



서울숲에 있는 분수

**여행정보**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 주소 서울 중구 세종대로 99
- 문의 02-2022-0600
- 운영일 화, 목, 금, 일요일 10:00~19:00 / 수, 토요일 10:00~21:00(야간개장) / 휴관일(매주 월요일, 1월 1일)
- 전시안내 '대한제국의 미술-빛의 길을 꿈꾸다' 2019년 2월 6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 주소 서울 종로구 삼청로 30
- 문의 02-3701-9500
- 운영일 월, 화, 수, 목, 일요일 10:00~18:00 / 금, 토요일 10:00~21:00 (18:00~21:00 야간개장 무료관람), 휴관일(1월 1일, 설날, 추석)
- 전시안내 '하루 파로키-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2019년 4월 7일까지

**대림미술관**

- 주소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4길 21
- 문의 02-720-0667
- 운영일 화, 수, 금, 일요일 10:00~18:00 / 목, 토요일 10:00~20:00 / 휴관일(월요일)
- 전시안내 '나는 코코카피탄, 오늘을 살아가는 너에게' 2019년 1월 27일까지

**본다빈치 뮤지엄 갤러리아 포레점**

- 주소 서울 성동구 서울숲2길 32-14
- 문의 070-8806-0329
- 운영일 화~일요일 10:00~18:00, 휴관일(월요일)
- 전시안내 '르누아르:여인의 향기' 2019년 4월 28일까지



본다빈치 뮤지엄의 '르누아르展'

**르누아르를 만나고 자연을 만나는 갤러리아 포레와 서울숲**

한 발짝 떨어져 눈에만 담는 미술품이 아니라 작품 속으로 풍덩 빠져 온몸으로 체험하는 전시가 있다. 서울숲 곁에 있는 본다빈치 뮤지엄 갤러리아 포레점에서 '르누아르: 여인의 향기展'이 열린다. 이 전시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인상파 화가 오귀스트 르누아르의 작품과 IT기술이 결합된 컨버전스 아트다. 빛을 관찰하고 강렬한 색감으로 표현하는 르누아르의 작품이 미디어와 만나 생동감을 더했다. 전시 주제인 '여인의 향기'에 맞게 아로마 오일향으로 체험이 시작된다. 마음에 드는 아로마 오일을 골라 손목과 귀 뒤에 콕 찍고 전시장으로 들어선다. 화려하고 환상적인 작품들에 홀리듯 끌려 어느새 르누아르의 작품 속을 거닐게 된다. 전시장을 나오면, 전시와 이어지는 듯한 빛과 화려한 색감의 자연을 가진 서울숲이 기다리고 있다. 르누아르 작품을 보고 난 후 마주한 풍경은 이전과는 분명 다르다. 빛을 받아 반짝이는 나뭇잎과 넓은 공원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마저 르누아르의 작품처럼 느껴진다. 전시장이 테마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듯 서울숲도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곤충박물관, 습지초화원, 은행나무숲 등 빛이 그리는 풍경을 느끼며 산책하기 좋다. 🍀

현장

글 한상현 사진 양수열

# 11년 이어온 사랑의 축구대회 인연도, 나눔도 계속된다

축구로 이어온 인연이 올해로 11년째를 맞는다. 미라클FC와 서울 사랑의열매가 함께하는 '사랑의 축구대회'가 올해도 풍성한 나눔과 함께 개최되었다. 지난 11월 3일, 서울 성동구에 있는 한양여자대학교 운동장에서 진행된 사랑의 축구대회 현장에 가보았다.

## 김용만 미라클FC 단장 “벌써 11회라니 모두에 감사”

“11년 전이 생각납니다. 처음 사랑의 축구대회를 기획하면서 미라클FC 내에선 ‘우리가 이걸 10년 하면 대박이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벌써 11회를 했어요. 모두 감사합니다.” 미라클FC와 함께하는 사랑의 축구대회가 올해도 성황리에 개최됐다. 11년째 행사를 이어오고 있는 미라클FC 단장 개그맨 김용만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을 넘어 11년 동안 만남을 이어온다는 건 큰 의미가 있다.

## 사랑의열매 직원으로 구성된 FC열매들이 첫 출전

이번 ‘사랑의 축구대회’에 참가한 팀은 미라클FC, 혜심FC, FC열매들이, 디딤돌축구단 등 모두 4팀이었다. 미라클FC는 개그맨 김용만, 아나운서 김성주 등 연예인들이 주축을 이뤄 활동하고 있다. 디딤돌축구단은 축구를 통해 노숙인들의 사회복귀와 자립의지를 키우는 목적으로 창단된 축구팀으로 구로구 노숙인들로 구성됐다. 올해 처음 출전하는 FC열매



돌이는 사랑의열매 직원들로 구성된 축구팀이다. 경기에 앞서 6년째 축구 꿈나무들을 지원하고 있는 이윤희 서울호서전문학교 학장이 혜심FC 선수 대표에게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기도 한 이윤희 학장은 2013년부터 계속해서 성금을 지원해 왔다. 이날 사랑의 축구대회를 축하하기 위해 ‘쌀쌀맞은 닭’에서 치킨과 음료수를 지원했고 ‘대연스포츠’에서 축구용품을 제공했다. 한양여자대학교에서는 운동장을 사용하도록 대여해줬으며, 혜심FC 아이들이 입고 있던 유니폼 또한 한양여자대학교 패션디자인과 학생들이 디자인을 해 제공했다. ‘사진교육학회’에서는 드론 촬영과 함께 행사 전체를 담은 사진을 촬영해주기도 했다.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끝났다.

## 김성주·안정환 “혜심FC와 우정 계속 나눌 것”

점심 식사 겸 휴식 시간에는 사랑의열매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미라클FC 김성주 회장과 아이들이 트랙을 도는 달리기도 하고 뒤늦게 행사에 참석한 안정환 축구해설위원은 간단한 축구기술을 가르쳐주기도 했다. 식사 후에는 번외 경기로 사랑의 징검다리 게임을 했다. 대회 참가자 전원을 사랑팀과 열매팀으로 나누어 진행하는 게임이었다. 흠이 파인 막대를 하나씩 들고 한 줄로 이어서 서면 그 위에 골프공을 굴려 결승선에 있는 컵 속에 넣는 것이다. 서로에 대한 믿음과 협력이 없으면 공을 떨어뜨리기 쉽다. 이 게임은 사랑팀이 승리했다. 모든 경기가 끝난 후 미라클FC에서는 각자 바람이 담긴 메시지를 적어 혜심FC 아이들에게 전달했다.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들이기에 축구선수 출신 안정환 해설위원의 등장을 반가워했다. 마이크를 잡은 안정환 해설위원은 “혜심FC 여러분을 응원하는 분이 많으니까 씩씩하고 건강하게 대한민국을 빛내는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다.” 이날 대회 우승은 혜심FC에 돌아갔고, 대회를 주최한 미라클FC에는 11년 동안 함께해 준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미라클FC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혜심FC와 사랑을 나누는 교류행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



사랑의 축구대회 정식 경기는 모두 4게임이 치러졌다. 미라클FC와 혜심FC가 맞붙은 개막경기를 시작으로 FC열매들이와 혜심FC가 두 번째 경기를 가졌다. 그리고 이어 미라클FC와 디딤돌축구단, 마지막으로 미라클FC와 FC열매들이가 경기를 펼쳤다. 경기는 혜심FC가 미라클FC와 FC열매들을 연이어 격파하며 2승을 차지했다. 미라클FC와 디딤돌축구단의



## 현영 홍보대사, 엔젤마켓 자선바자회 성황 중소상인 돕고 기부도 하고

언제나 유쾌한 모습으로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방송인 현영씨가 자선바자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많은 동료 연예인의 응원 속에 진행된 '2018 현영의 엔젤마켓' 현장을 찾았다.



### 변진섭, 김완선, 배기성 등 인기 연예인들도 '동참'

창립 21주년을 맞은 AK프라자 분당점 1층 로비가 사람으로 가득 찼다. 백화점 내를 가득 채우는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멀리서도 단박에 알아차릴 수 있었다. 언제나 유쾌한 표정, 말투, 행동으로 국민들에게 오랜 기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방송인 현영씨였다.

현영씨의 자선 기부 행사 '2018 현영의 엔젤마켓'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훈훈함을 더하며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지난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경기도 성남 AK프라자 분당점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현영씨와 함께 수많은 연예계 선후배, 동료가 참여했는데, 가수 변진섭, 김완선, 배우 설인아, 진주형, 정은우, 최재원을 비롯해 방송인 로빈 데이아나에 이르기까지 많은 연예인이 응원 영상을 통해 기부바자회의 성공을 기원했다. 특히 가수 배기성씨는 11일 오후 현영씨와 함께 경매 진행에 참여해 재치있는 입담을 과시하기도 했다.

### 참여한 50여 업체는 기부금 및 수익금 전달

3일간 진행된 행사는 개그맨 이영식, 추대엽씨가 사회를 맡고 베이지, 걸그룹 테스트니, 비트박스 Synth, 팝핀제이 패밀리, 박인식, 강자민, 윤지숙, 임재현, 차민기, 윤태라, 전유정 등이 공연 무대에 올랐다. 그 밖에 황석정, 최재원, 장동민, 벤, 윤송아, 최성희, 최윤슬 등의 애장품 기부와 함께 브랜드 텔라스텔라가 기부 부스에 참여해 행사장을 찾은 고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2018 현영의 엔젤마켓'에는 50여 업체 브랜드가 참여해 기부금 및 수익금을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현영씨는 "요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도우면서 기부도 할 수 있어 이런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면서 "엔젤마켓을 통해 작았던 브랜드들이 기회를 얻어 성장하고 또 다른 기부를 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보람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고객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에 연예인 최초로 이름을 올린 현영씨는 2006년 3월 사랑의열매 홍보대사로 위촉된 후, 수해 지역 복구 자원봉사, 태안반도 기름 유출 시 자원봉사 활동을 했으며, 자선 꽃 판매에서 일일 판매 사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또한 매년 초등학교를 방문해 일일 나눔교사로 활동을 하며 초등학교생들이 할 수 있는 나눔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는 2007년과 2008년에는 5,000만 원씩 저소득 홀어르신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기부를 하기도 했다. 현영씨는 "국민들이 주신 사랑을 올바른 방법으로 돌려주는 것 역시 연예인이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런 뜻에 동참한 적지 않은 동료 연예인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현영씨는 이번 엔젤마켓 행사 외에 사랑의열매 온도담 제막식 등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 기업기부보다 개인기부가 많은 십시일반 DNA 주민과 같이 뛰니 열매가 주렁주렁

전북은 한국GM군산공장 폐쇄로 인해 하청 업체들도 큰 타격을 받으면서 지역이 큰 위기를 맞았다. 고전이 예상되던 전북 사랑의열매. 그러나 오히려 성장을 거듭하며 지난해 우수 지회 선정이라는 놀라운 성장을 이뤄냈다. 하루하루 나눔의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는 전북 사랑의열매를 찾았다.

중소도시와 농어촌이 공존하는 도농 복합지역인 전북은 예부터 풍요로운 서부 평야와 예향의 고장, 맛의 고장으로 손꼽혀 왔다. 그러나 최근에 전북의 상황은 대한민국 사회가 마주한 위기를 압축해 놓은 듯 보인다. 2년째 경제성장률 0%, 전국 증가율 2배에 달하는 속도로 고령사회 진입, 전국 최대 청·장년층의 빈곤율 등의 안타까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23.6%로 전국 평균인 53.7%와 비교하면 크게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북 사랑의열매는 현실의 어려운 상황에 굴하지 않고 지역민들의 나눔 DNA를 발판 삼아 지역의 나눔문화를 더 단단하게 일궈내고 있었다.

## 개인기부가 모금액의 61%... 착한가게도 급증

전북 사랑의열매의 가장 큰 특징은 착한가게나 CMS와 같은 개인기부가 모금액의 61%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기업기부가 높은 다른 지역과 다른 양상이다. 특히 올해 개인기부자 모금액이 월 2,000만 원 이상으로 증가하고, 착한가게도 394개소나 늘었다. 전주, 익산, 군산, 완주를 제외하고는 군 단위 농촌 지역이 대부분인 것을 고려하면 의외의 결과다. 그러나 정동의 전북 사랑의열매 사무처장은 지역 주민들에게 흐르는 나눔 DNA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말했다.

“전북은 풍요로운 평야 지대에서 농사짓고 살던 곳이잖아요. 옛날부터 이웃이나 동네에 도움이 필요하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내 일처럼 도와주던 나눔 DNA가 흐르고 있죠. 또 동네 이장님들과 읍·면사무소의 협조도 모금에 큰 힘이 됐어요.”

지역에서 소소하게 봉사활동하던 부녀회에서 시작된 전북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의 활약도 나눔 DNA와 맥을 같이한다. 매월 지역에서 봉사와 나눔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지역 축제 때마다 홍보 부스를 설치해 나눔 참여를 독려하거나, 명절 바자회를 진행해 수익금을 전달하고 있는 것. 착한가게가 많이 늘어난 것도 나눔봉사단이 지역 내 착한가게 발굴 캠페인과 홍보에 앞장서준 덕분이다.

“GM공장 폐쇄로 인한 지역 경제 위축으로 ‘하룻밤 지나니 내 옆 친구가 떠나고 없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피부로 직접 느껴지는 가까이에 있는 친구, 이웃의 일에 작은 도움이라도 더하겠다며 나서는 분들이 많아요.”

양효경 전북 사랑의열매 모금사업팀장은 어려울 때 외면하지 않고 ‘동네복지’를 통해 내 이웃을 돌보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역 주민들의 마음 씀씀이가 더없이 따뜻하게 느껴진다고 전한다.

## 패밀리 아너·리더스 클럽 활성화로 고액 모금 유도

전북 지역에는 현대자동차를 제외하고는 알려진 대기업이 없다. 기업이 부담하는 거액 기부의 부채를 극복하기 위해 전북 사랑의열매는 중·고액 모금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아너 소사이터티 회원의 가족이나 지인이 아너가 되는 ‘패밀리 아너’다. 나눔의 가치를 잘 알고 있는 아너의 활동을 주변 사람들이 보면 나눔에 대한 부담이 줄고, 동참하기 쉽다. 실제로 전북 지역 아너 1호인 배준식 인삼농장 대표는 주변 사람들에게 ‘나눔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아너가 됐다고 했다. 이후 부인도 아너로 가입해 '패밀리 아너'가 되어 가족이 함께 나눔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보람된 것인지 보여줬다.

한편 전북 사랑의열매는 나눔리더와 나눔리더스클럽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다. 상하반기 2,800만 원을 급식비로 지원한 '청소년과 함께하는 변호사 모임'이 대표적이다. 또 장학금과 희귀난치병 및 월경곤란증 치료비로 지원하는 교사와 교직원이 1인 1계좌로 참여하는 '제자사랑리얼러브'와 같이 모임에 맞는 모금계좌를 기획해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최근 전북혁신도시 이전으로 공공기관이 늘어나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이에 착한일터를 제안해 기업 참여도 늘리고 있다. 또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역 내 오래된 전등을 LED 램프로 교체하는 사업을 제안하거나, 한국서부발전 군산발전본부에 전기로 할 수 있는 또 다른 사업을 제안하는 등 기존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사업을 제안하고 있다.



김동수 전북 사랑의열매 회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 11월 20일 열린 희망2019나눔캠페인 출범식에서 62개 배분기관에 2019년 사업비를 전달하고 있다.

### 기초수급자 많은 지역 현실... 효율적인 직간접 지원 진행

전북에는 도움이 절실한 기초생활 수급자가 9만 4,000명으로 전북도민의 5.1%에 달한다. 도움이 필요한 곳들을 모두 지원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불가능한 것이 현실. 때문에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적인 생계비 지원과 함께 사회복지단체를 지원하는 간접적인 지원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빈곤과 기초 생계비 지원을 위해서 88억 원을 중점 지원하며, 장기적으로 가계금융역량강화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구성모 전북 사랑의열매 배분사업팀 대리는 현장에서 호응 높은 사업으로 집수리 지원 사업도 꼽았다. 집이 화재로 소실되거나 반파되어도 수리할 능력이 없는 이웃들에게 반개축이 가능하도록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연말이 되면서 나눔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 구 대리는 도움도 중요하지만, 좀 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쌀이나 연탄 같은 물품에 대한 중복 지원이 많아요. 기부처에서 눈에 드러나거나 노출이 지속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죠. 큰 도움이 되지만, 그것만으로 살수는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잘 드러나지 않는 반찬이나, 공과금을 낼 수 있는 현금, 인력 등도 필요하기 때문이죠. 앞으로 그 차이가 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북 사랑의열매는 지역이 가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아이들이 살기 좋은 지역이 되어 젊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웃음꽃이 만발한 살기 좋은 전북을 만들어가는 전북 사랑의열매의 멋진 활약을 기대해 본다. 

정동의 전북 사랑의열매 사무처장

## “현장 밀착형 모금과 배분 활동 끝까지에서 어느새 3등으로 성장”

“지난해 전북 사랑의열매가 우수 지회로 뽑힌 게 가장 뿌듯한 일입니다.”

충남 사랑의열매 설립 멤버로 사랑의열매에 발을 디딘 이후 20년째 근속 중인 정동의 전북 사랑의열매 사무처장은 그동안의 수많은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전북 사랑의열매의 성장을 꼽았다. 2014~2015년 최하위를 기록했던 전북 사랑의열매는 그가 부임한 2016년에 6등으로 크게 성장했고, 지난해에는 개인기부 30억 원 증가에 힘입어 3등을 차지해 우수 지회로 꼽혔다. 모금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다음 해에도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부임해서 지역 내 기부를 철저하게 분석해 보니 읍면동과의 관계가 부족했어요. 이후 매달 간담회를 진행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도움을 모금사업과 연계했습니다. 또 후원자와 거주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곳을 연결했어요. ‘바로 결의 이웃을 도울 수 있다’는 것에 많이 호응해 주신 게 좋은 결실로 나타났습니다.” 뜻밖의 성과에 직원들의 분위기도 한층 밝아졌다. 그동안 열심히 일한 것에 비해 낮은 평가로 힘이 빠졌던 것. 한창 바쁜 연말 캠페인에 힘을 더하기 위해 출산휴가 복귀를 3개월 앞당긴 직원이 있을 정도로 성취감으로 신나는 하루를 보내고 있다.



### “개인모금액 1만 원 목표, 튼튼한 풀뿌리 기부 만들겠다”

정동의 사무처장은 올해 사랑의열매 활동이 계획한 대로 잘 되어 만족스럽다고 평가한다.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모금 여건이 쉽지는 않지만, 개인기부는 기업기부에 비해 크게 위축되지 않기 때문이다. 10월 중순 기준 월평균 개인 정기부 증가가 CMS 289건, 착한가게 53개소, 착한가정 17가정에 달한 것. 아너 가입도 9명이 늘었다.

“개인모금액을 현재 7,400원에서 1만 원까지 키워 풀뿌리 기부를 탄탄하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또 배분을 통해 빈곤의 대물림 없는 사회, 학대와 차별이 없는 사회,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나눔과 사랑을 세제 삼아 마음의 때를 씻어내는 세탁소

대한민국 대표 연극 <오아시스세탁소 습격사건 1>이 또다시 돌아왔다.  
나눔과 사랑을 세제 삼아 오염된 마음까지 세탁해 주는 이 세탁소에  
당신의 옷과 가슴을 맡겨보는 건 어떨까.



누적관객 30만 명 동원한 연극 <오아시스세탁소 습격사건 1> 후한이 몰아치는 12월 따뜻한 군고구마 같은 연극이 우리 마음을 환하게 밝힌다. 2003년 예술의전당 초연 이후 40만 관객에게 '인간에'의 소중함을 일깨웠던 강태국 아저씨의 세탁소 이야기가 혜화동 알과핵 소극장에서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오아시스세탁소 습격사건 1>은 지난 15년 동안 서울 도심의 극장 외에도 문화 기반이 취약한 외판 마을의 학교를 비롯해 군부대와 교도소 등 연극을 보기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마음에 베푼 감동을 만들어내곤 했다. 이 극적 교감은 교과서로도 이어져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대본이 수록되는 등 국민연극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변두리 허름한 동네에서 30년째 세탁소를 운영하는 강태국씨는 백수와 외판원, 술집 아가씨와 일용직 노동자 등 고만고만한 애환을 갖고 사는 손님들이 맡긴 옷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긴다. 낡은 외투, 보풀이 가득한 스웨터, 흙투성이의 작업복 등이 대부분이지만 요란한 소리를 내는 월풀을 돌려 빨아서는 온종일 알전구 아래에 서서 다리고 가다듬으며 새옷처럼 복원해 내곤 한다.

치이고 놀리며 뜻대로 되지 않는 삶에 허덕이는 이들에게 잘 빨아서 말리고 다림질한 옷을 전하는 일을 천직으로 믿고 있는 것이다. 취직하고 유학 가고 팔자를 고쳐 부모님 호강시켜 드리고 싶은 그들의 소망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온기 가득한 세탁소가 이수라장이 되며 스토리는 반전을 맞게 된다. 자빠지고 엎어지고 찢어지고 터지고 사상 유례없는 동네 사람들의 습격으로 수백 벌의 옷은 처박히고 널부러지며 오아시스세탁소는 일대 혼란의 도가니가 된다.

## 사람답게 살기를 생각하는 나눔의 자리

많은 관객은 이 무대가 '연극'과 '사람'에 대한 애정으로 꽂차 있다고 얘기한다. 세탁비닐에 썬 채 천장에 매달린 수백 벌의 옷과 스탬다리미와 재봉틀이 놓인 무대는 정겨운 옛

동네의 세탁소를 생각나게 한다. 그리고 그 기억을 떠올리는 동안 관객은 옷을 맡기러 온 이웃이 되고 만다.

연출가 김정숙은 지난 15년간 이 연극을 만들며 얻은 보람이 '매진사례'나 '동아연극상' 수상에 있지 않다고 얘기한다. "강당이나 식당의 간이 무대 앞에 둘러앉아 관객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이게 연극이구나!' 하고 감탄하는 순간이 가장 행복해요. 연극이 끝난 후 아이 같은 얼굴로 활짝

웃던 소년병의 모습이 잊히지 않아요. 그게 10년 전 일이니까 이제 멋진 청년이 됐겠죠?"

죽어가는 어머니에게서 '세탁'이란 말 한 마디를 듣고 세탁소에 맡긴 빨래 속에 엄청난 유산이 있다고 믿는 안씨네 가족. 급기야 야심찬 밤을 택해 세탁소 수색을 감행하게 되며 소문을 접한 동네 사람들까지 금은 보화를 찾아 오아시스세탁소 습격에 가담하게 된다. 선량한 강태국씨 또한 존재하지

않는 보물 앞에서 흔들리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으며 옷이 아닌 이웃들 마음에 낀 때를 빼기로 마음먹는다.

## 주변을 헤아리는 마음이 나눔의 시작

100여 석이 놓인 극장은 늘 열기와 감동으로 가득하다. 춤춤하게 붙어 있는 좁고 불편한 객석에서 관객들은 서로 부딪히고 밀리는 불편을 경험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함께한 증거라며 기뻐한다. 이 연극이 좋은 건 각박한 일상을 여유롭게 대할 수 있는 숨을 갖게 한다는 데 있다. 드라이클리닝이 잘못돼 색상이 변질된 옷을 놓고 세탁소 주인과 언쟁을 벌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런 불편한 일이 또 생기게 된다고 해도 이번엔 얼굴을 붉히지 않게 될 것이다.

극 중의 세탁소 주인 강태국씨를 떠올리는 순간 달라진 셔츠의 색깔이 그의 외로운 마음처럼 느껴져 이내 애정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얼마간 손해를 본다 해도 주변을 헤아리고 이해하는 마음, 그게 나눔의 시작이 아닐까 싶다. 우리의 마음을 선하고 환하게 씻어주는 연극 <오아시스세탁소 습격사건 1>은 12월 30일까지 서울 혜화동 알과핵 소극장에서 공연된다. ❀



# 어르신들에 빵 주고 이웃에 고구마 주고 나누는 기분이요? 빵빵합니다!



안녕하세요. 용인에 사는 '빵할아버지' 모질상입니다. 우리 동네에선 내 이름보다 빵할아버지로 알아보는 분이 많아요. 왜 빵할아버지냐고? 사연이 좀 있어요. 우리 동네가 용인시 처인구 중앙동인데, 여기에 홀어르신들이 꽤 있어요. 2003년 중앙동 주민들로 구성된 봉사모임 사랑회가 결성됐는데 내가 2대부터 회장을 맡았죠. 2013년 회장직을 내려놓고 나서 지역을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 홀어르신들 말벗이 되어 드리자는 생각에 빵을 사다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빵은 매주 금요일 내가 직접 오토바이로 배달을 합니다. 원래는 동네 어르신들에게만 갖다 드렸는데 용인시에 있는 무주택 홀어르신 거주시설 사랑의집에도 찾아갑니다. 시설에서 요청을 했거든요.

첫째 주와 셋째 주는 중앙동 사시는 홀어르신 35명에게 빵을 갖다 드려요. 그리고 둘째 주와 넷째 주는 사랑의집에 거주하는 33명의 어르신에게 빵을 드립니다. 둘째 주 사랑의집 방문할 때는 떡케이크도 가지고 가요. 그달 생일 맞은 분들 축하해 주려고요.

생일이라고 자식들이 찾아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라도 축하해 드리고 싶어 하고 있어요. 빵은 어르신 한 명당 7개를 드립니다.

단팥빵 5개와 소보로 2개죠. 다들 단팥빵을 선호하시는데 한 가지만 먹으면 질릴 수 있어 두 종류를 드립니다. 왜 빵이냐고요?

식사 대용으로 좋아요. 혼자 계시면 밥을 잘 안 차려 먹거든요. 거동이 어려워 외식도 못하잖아요.

한 달에 두 번인데도 어르신들 찾아가면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몰라요. 1년에 한두 번 보는 자식보다 내가 반갑대요. 대부분

나보다 나이가 많으시니 나를 동생 대하듯 해요. 저도 형님, 누님 만나러 가는 것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다닙니다.

매주 빵을 사다 드리는 게 부담스럽지 않냐고요. 내가 좋아서 합니다. 자비(自費)를 들여 빵을 전하는

이유는 사랑의 빛을 갖기 위해서예요. 중앙동에서 생선가게를 하면서 자식 키우고 살았습니다.

지금의 어르신들이 제 가게에서 생선을 사갔던 분들예요. 이분들 도움 없이 어떻게 내가 살 수 있었겠어요. 이제 그 빛을 갚아야죠.

빵 외에도 '개미천사 모금' 100계좌에 한 달에 10만 4,000원을 내고 있고 칠순 축하금 2,000만 원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사랑의열매에 기탁했습니다. 고구마 얘기도 할까요?

3년 전부터는 고구마 농사를 지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어요. 2016년 100박스, 지난해엔 150박스를 수확해 중앙동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했죠. 올해는 재배 면적을

늘려 좀 더 많이 심었는데 300박스를 수확했어요. 경기 사랑의열매를 통해 중앙동에

150박스를 전하고 용인시 처인구의 나머지 3개 동에 50박스씩 전달했습니다. 내가

좋아서 한 일인데 상도 많이 주셨어요. 용인시장상과 경기도지사상도 받고 작년엔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는 행복나눔인상도 받았죠. 나를 드러내려고 한 게 아닌데 상을 받게

돼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내 건강이 허락하는 한 주변 어려운 이웃에게 빵 전하는

빵할아버지로 남고 싶어요. 나누면 행복하니까요. ♡



## 중앙회



### 하나금융그룹 성금 100억 기부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11월 19일 사랑의열매에 이웃돕기 성금 100억 원을 기부하며 '희망2019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을 방문해 예종석 사랑의열매 회장에게 성금을 전달했다. 함영주 행장은 "디지털 시대에도 변하지 않을 금융의 가치가 있다면, 이것은 사람에 대한 배려와 나눔이 될 것이다"라며 "사랑의열매와 함께 우리의 관심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주고 행복한 금융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신한금융그룹 100억 원 전달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11월 21일 사랑의열매를 방문해 이웃사랑 성금 100억 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 전달은 신한금융이 2017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희망사랑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전달식에서 조용병 회장은 "고객과 사회, 신한인의 가치를 함께 높이고 주변 이웃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희망사회 프로젝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달한 성금은 위기가정의 재기 지원과 홀어르신 지원 등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신한금융은 올해까지 사랑의열매에 모두 757억 원을 기탁했다.



### 아람코 코리아, 저소득층 장애 대학생 장학금

글로벌 에너지기업 사우디 아람코의 한국법인인 '아람코 코리아'가 지난 11월 15일 사랑의열매에 저소득층 우수 이공계 장애 대학생을 위해 장학금을 기부했다. 파하드 알 사할리 대표는 이날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예종석 사랑의열매 회장에게 기부금을 전달했다. 파하드 알 사할리 대표이사는 "장학금이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지속적인 나눔활동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롯데제과, 소외 아동·청소년들에 '빼빼로' 선물

롯데제과(주)는 지난 11월 6일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소외계층 어린이 지원에 사용해 달라며 초코, 아몬드, 초코쿠키 등 7가지 '빼빼로' 과자 4,700박스를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사랑의열매는 전달받은 과자를 전국의 아동·청소년 관련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했다. 배성우 롯데제과 커뮤니케이션 부문장은 "롯데제과가 국민에게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데 대한 보답으로 전국 아동·청소년 사회복지시설에 과자를 기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나눔을 다양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울



서울마주협회, 나눔리더스클럽 가입하며 5,000만 원 전달

서울마주협회(회장 강석대)는 지난 10월 22일 서울 사랑의열매(회장 윤영석)의 '나눔리더스클럽'에 가입하며 5,000만 원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전달했다. 서울마주협회와 서울 사랑의열매는 지난 2009년 시작된 '동물명의 기부 프로젝트'를 통해, 경주마의 이름으로 성금을 기부하는 나눔문화를 꾸준히 정착시켜 왔다. 2009년 마주 이수홍씨의 경주마 '백광'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마주 100명이 애마의 이름으로 기부에 동참했다.



서울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마음 따뜻한 겨울나기 봉사활동

서울 사랑의열매는 지난 10월 31일 영등포구에 위치한 광야홍리 스복지센터에서 서울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회원들과 함께 쪽방촌 주민 무료급식 배분 및 월동용품 지원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안병근 서울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회장, '나눔의리의 상징' 김보성 아너 회원을 비롯한 20여 명의 아너 회원들은, 쪽방촌 주민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패딩조끼를 포함한 월동용품 패키지를 구성해 쪽방촌 주민 100여 명에게 직접 전달했다.

경남



BNK경남은행 임직원, 나눔리더 55명 동시 가입

경남 사랑의열매(회장 한철수)는 지난 10월 15일 BNK경남은행(은행장 황윤철)과 나눔리더 가입식을 가졌다. 가입식에는 황윤철 은행장을 비롯해 임원과 본부 부서장 55명이 참석했다. 황윤철 은행장은 "나눔리더 가입은 더 많은 이웃을 돕자는 취지로 본사 외 여러 계열사로 확대되고 있다. 나눔문화를 선도하고 널리 확산시키는 나눔리더 가입이 우리 사회 각계각층으로 널리 퍼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마사회 창원지사 생계비 1,000만 원 지원

한국마사회 창원지사(지사장 박정진)는 지난 11월 15일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관내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을 위한 성금 1,000만 원을 경남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은 박정진 한국마사회 창원지사장, 이숙미 경남 사랑의열매 모금사업팀장, 조현국 창원시청 복지여성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시청에서 이뤄졌다. 박정진 지사장은 "생계비 지원을 통해 이웃들이 겨울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맞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경기



Choi's happy fund 나눔활동, '해피푸드 이동급식차량' 전달식

최신원 SK네트웍스 대표는 지난 11월 15일 경기 사랑의열매(회장 이순선)와 함께 '해피푸드 이동급식차량' 전달식을 진행했다. 최신원 대표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Choi's happy fund' 사업의 일환으로, 밥차를 통해 화성시 관내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홀어르신 등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진행하게 된다. 앞으로 본 사업이 영양 결핍이나 영양 불균형에 처할 수 있는 저소득가정 어르신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8 경기 북부 사랑의열매 '나눔리더' 캠페인 스타트

경기 북부 사랑의열매는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18년 경기 북부 사랑의열매 나눔리더 캠페인'을 전개한다. 나눔리더는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의 나눔문화를 선도하는 개인기부자를 뜻하며, 1년 내 100만 원 이상을 약정할 경우 가입할 수 있다. 경기 북부 사랑의열매는 주요 경제단체 및 협의체 민간위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참여를 제안하고 있으며, 각종 매체와 간행물을 통한 홍보 지원, 지역사회 내 봉사활동 등을 연계할 계획이다.

경북



경북 23개 기초단체장 전원 나눔리더 동시 가입

경북 사랑의열매(회장 신현수)는 지난 11월 20일 전국 최초로 경북 지역 23개 기초단체장 전원이 나눔리더에 동시 가입했다. 이날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장경식 경상북도의회장,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 등 23개 시·군 단체장은 경북 지역 소외이웃을 위해 100만 원씩 기부하며 나눔리더가 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기초단체장이 모두 동참해 주 감사하며, 이를 계기로 경북 곳곳에서 나눔리더가 릴레이로 탄생하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금복주, 캠페인 통해 판매 수익 일부 기탁

(주)금복주(대표이사 황형인)는 지난 10월 18일 대구 달서구 소재 본사 대회의실에서 '대구·경북 사랑기금 조성 협약식'을 열었다. 협약식은 이웃사랑 실천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맛있는 참과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 캠페인을 올해 말까지 전개하기 위함으로, 경북 사랑의열매 및 대구 사랑의열매와 함께했다. 캠페인은 '맛있는 참'의 판매 수익 일부를 적립해 올 연말까지 총 5억 원의 성금을 조성, 이를 통해 연말연시 소외계층과 어려운 이웃을 도움 예정이다.

세종



**이종철 현대주류상사 대표, 성금 1,000만 원 전달**  
 이종철 (주)현대주류상사 대표는 11월 15일 세종 사랑의열매 사무실을 방문, 성금 1,000만 원을 세종 사랑의열매(회장 홍영섭)에 기탁했다. 이종철 대표는 법인 500만 원, 개인 5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해 희망2019나눔캠페인 첫 기부자가 됐으며, 나눔리더에도 가입했다. 이종철 대표는 “희망2019나눔캠페인의 첫 기부자로 나눔을 실천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세종시 나눔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맘카페, 엄마의 마음으로 담긴 김장김치 전달**  
 세종맘카페(회장 정연숙)는 11월 16일 세종시 장군면 한 농가에서 맘카페 회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를 전개했다. 세종맘카페는 나눔리더스클럽 2호 회원으로 평소 지역사회 나눔 실천에 앞장서 왔다. 이날 만들어진 김장김치는 관내 저소득가정 30가구에 5kg씩 총 150kg이 전달된다. 정연숙 회장은 “회원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김장김치를 만들어 관내 저소득가정에 전달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소감을 전했다.

제주



**지산산업, 사랑의 장학금 1,500만 원 기탁**  
 (주)지산산업(대표 한해성)은 지난 10월 28일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사랑의 장학금 1,500만 원을 제주 사랑의열매(회장 고승화)에 기탁했다. 기탁금은 지역의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 한해성 대표가 마련한 것으로 올해로 5년째 지속하고 있다. 더불어 지난 2014년부터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후원금을 전해 오고 있는 한 대표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에서 나눔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고관 제주축협 노형종합타운 장장, 나눔리더 49호 가입**  
 고관 제주축협 노형종합타운 장장은 지난 10월 31일 제주 사랑의열매(회장 고승화)를 방문해 나눔리더 인증패를 받고 나눔문화 확산에 동참했다. 이날 나눔리더 49호로 가입한 고관 장장은 “주위에 나눔을 실천하는 분들이 있어 이번 기회에 나눔리더에 동참하게 됐다”며 “많은 분이 나눔리더에 동참해 제주 지역 나눔문화 확산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인천



**인천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의 밤 행사 열려**  
 인천 사랑의열매(회장 정명환)는 지난 10월 25일 서구 소재 엘림아트홀에서 '2018 인천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의 밤'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윤석재·정광모 아너는 감사패를, 사회복지의 날 유공자인 한명희·이상건·서동만 아너는 인천시장 표창장을, 장석현 아너는 공로패를 전달받았다. 이후 성악공연, 현악사중주 등 문화공연을 함께한 회원들은 회원의 밤 행사와 봉사활동을 통해 회원 간 교류를 확대하고, 신규 회원 발굴에도 적극 힘쓰기로 결의했다.



**한국중부발전인천발전본부, 복지시설에 태양광발전 지원**  
 한국중부발전 (주)인천발전본부(본부장 안천수)는 지난 11월 12일 성문노인복지센터에서 대기질 개선 사업 기부금 1,002만 원을 인천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기금은 인천발전본부에서 대기오염 물질을 감축해 판매한 수익금과 회사 자체 기부 재원을 합쳐 조성된 것으로, 사회복지시설의 태양광발전 설치 등 인천시 서구 관내의 대기질 개선과 에너지 빈곤층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전남



**한수원 한빛원자력본부 기부금 7억 원 전달**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본부장 석기영)는 지난 11월 20일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열린 희망2019나눔캠페인 출범식에서 전남 사랑의열매(회장 허정)에 7억 원을 전달하고 캠페인 1호 기부자가 됐다. 한수원 한빛원자력본부는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기부와 사회공헌을 통해 실천해 오고 있으며, 저소득 세대를 위한 생계비 지원 등 나눔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전남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의 날 개최**  
 전남 사랑의열매는 지난 11월 2일 남악스카이웨딩컨벤션 4층 아노이홀에서 '2018 전남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아너 소사이어티 활동 경과보고, 활동 영상 상영, 신규 아너 및 패밀리 아너 가입식, 올해의 아너 시상식, 완납 회원 핸드프린팅 순으로 진행됐다. 노동일 전남 아너 소사이어티 대표는 “앞으로 전남 아너 소사이어티의 활동이 지속 가능한 나눔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전북일보》, 소아암 환우 돕기 골프대회… 3,000만 원 모아**  
 《전북일보》(회장 서창훈)는 지난 11월 17일 전주 상그릴라CC에서 소아암 환우 돕기 골프대회를 주최했다. 이날 대회에 참가한 60개 팀 240여 명의 아마추어 골퍼들은 연신 밝은 얼굴로 대회에 임했으며, 이날 모금한 기금 3,000만 원을 전북 사랑의열매(회장 김동수)에 전달했다. 서창훈 회장은 “골프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인생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번 대회로 모인 기금이 소아암 환우들에게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농협, 김장김치 10톤 담가 소외계층에 전달**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지난 11월 13일 KBS 전주 광장에서 농가주부모임, 고향주부모임, 농촌사랑봉사단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전라북도 김장김치 축제 한마당’을 열었다. 전북농협은 김장철 맞이 채소 소비 촉진을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김장김치 축제를 10년 넘게 진행해 왔다. 이번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담근 김장김치 10톤과 합쌀 1톤은 전북 사랑의열매를 통해 전북 14개 시·군 어려운 이웃에 전달될 예정이다.



**새울원자력본부, 울산 100번째 착한기업 선정**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본부장 이인호)가 울산의 100번째 착한기업으로 선정되면서, 지난 10월 30일 새울원자력본부 본관에서 착한기업 100호 현판식을 가졌다. 새울원자력본부는 직원들의 급여에서 후원하는 러브펀드와 그 금액만큼 매칭그랜트해 꾸준히 기탁하고 있는 점을 인정받아 착한기업으로 선정됐다. 새울원자력본부는 지난해 1억 3,000여만 원 기부를 포함,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쳤으며, 2017년 분사 이후 총 2억여 원을 누적 기부했다.



**대한유화, ‘나눔국민대상’ 국무총리상 수상**  
 울산 사랑의열매(회장 한시준)는 지난 11월 8일 대한유화(주)(대표 정영태)에 ‘2018년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국무총리상을 전달했다.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은 나눔 실천자를 적극 발굴, 포상해 나눔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나눔을 확산하기 위해 2012년에 처음 제정됐다. 대한유화는 지난 2002년부터 매년 울산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 연말에는 20억 원을 기부해 울산 지역 복지 자원 안정화에 크게 기여했다.



**2018 대구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총회 개최**  
 대구 사랑의열매(회장 직무대행 김수학)는 지난 10월 29일 수성구 호텔수성에서 ‘2018 대구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총회’를 열었다. 총회는 신규회원 소개, 2018 대구 아너 소사이어티 경과보고, 나눔 퍼포먼스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지속적인 고액기부 활성화 방안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신홍식 대구 아너 소사이어티 대표 회장은 “대구 아너 회원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 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한우협회 대구경북지회, 2,000만 원 상당 한우공탕 전달**  
 전국한우협회 대구경북도지회(회장 김삼주)는 지난 11월 2일 두류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2,000만 원 상당의 한우공탕을 대구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공탕은 대구광역시농업은행을 통해 대구의 소외된 이웃들이 영양가 있고 푸짐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될 예정이다. 김삼주 회장은 “대구의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계속해서 우리 한우협회는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나눔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충남 사랑의열매, 사회복지서비스 차량 33대 전달**  
 충남 사랑의열매(회장 이관형)는 지난 11월 7일 사회복지서비스 차량 33대(8억 원 상당)를 이동 편의가 취약한 충남 지역 사회복지기관에 전달했다. 이번 차량 지원은 충남도민이 모금한 성금 8억 원을 통해 조성됐으며, 이를 통해 냉동탑차 5대, 경차 7대, 승합차 21대 등 총 33대가 마련됐다. 이관형 회장은 “도민들께서 모아주시는 성금을 바탕으로 아동, 장애인 등 이동에 불편을 겪는 이웃들에게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더욱 뜻깊다”고 밝혔다.



**서천군장애인체육회, 연합모금 협약 및 나눔리더·착한가게 가입**  
 충남 사랑의열매는 지난 11월 14일 서천군청 대회의실에서 서천군청장애인체육회(회장 노박래)와 연합모금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서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5,800여 명의 체육 복지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나눔리더와 착한가게 동시 가입 또한 진행됐으며, 신규 나눔리더로 김용수 코츠 대표 외 4인이, 신규 착한가게로 고려페인트 등 10곳이 가입했다.

충북



음성군 '김동현·신윤식 부부', 결혼식 축의금 기부

음성군의 김동현·신윤식 부부는 지난 11월 1일 결혼식 축의금 일부를 음성군 맹동면의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는 아동에게 지원해 달라며 충북 사랑의열매(회장 이명식)에 기부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김동현씨는 "평소 이웃을 위해 물심양면 헌신하는 장모님을 보며 기부를 결정했다. 우리 부부가 받은 축복을 나누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장모 심경희씨는 2013년 충북 사랑의열매 음성군나눔봉사단에 가입해 기부자 발굴과 재능봉사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다.



충북소주 희망2019나눔캠페인 홍보협약식

충북소주(대표 이종훈)와 충북 사랑의열매는 지난 11월 16일 건전한 기부문화 창출을 위한 '희망2019나눔캠페인 홍보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에 따라 '사랑의열매 20년, 나눔으로 행복한 충북'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기치로, 2019년 1월 말까지 생산되는 '시원한 청풍' 소주 500만 병에 '희망2019나눔캠페인' 홍보 보조상표가 부착된다. 충북소주는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연탄 1만 장 기탁, 장학금 후원 등 충북 대표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부산



한국주택금융공사,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이정환)는 지난 11월 19일 부산 사랑의열매(회장 신정택), 부산시니어클럽협회(협회장 이동훈)와 'HF 행복나눔 실버일자리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부산 지역만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맺어졌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부산 16개 구(군) 시니어클럽 소속 사업장에 쇼핑백 제작, 아파트 내 택배 물품 분류 및 배달, 주차장 관리 업무를 할 어르신을 고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지방법무사회 나눔리더 및 착한법무사 동시 가입

부산 사랑의열매는 11월 5일 연제구 부산지방법무사회(회장 정성구) 회의실에서 부산지방법무사회 회원들의 나눔리더 및 착한법무사가입식을 진행했다. 이날 정성구 회장과 홍동기 상근부회장이 나눔리더로, 법무사 회원 35곳이 착한법무사로 동시 가입했다. 이번 가입은 지난 2018년 9월 부산지방법무사회가 부산 사랑의열매 나눔리더스클럽에 3호로 가입한 이후,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나눔리더와 착한법무사를 통해 나눔에 동참하기로 결심하면서 성사됐다.

광주



2018 광주 아너 소사이터티 회원의 날 개최

광주 사랑의열매(회장 한상원)는 지난 10월 31일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 구제길 광주 아너 소사이터티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광주 아너 소사이터티 회원의 날을 개최했다. 광주 사랑의열매 모금 및 배분사업 현황보고, 아너 소사이터티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와 함께 회원 간 교류의 시간이 마련됐다. 이와 더불어 구제길 아너가 광주 아너 소사이터티 회장으로 위촉됐으며, 조건국 광주 아너 소사이터티 전임 회장은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대우전자·대유위니아, 사랑 나눔 행사 진행

대우전자(대표 안중구)와 대유위니아(대표 김재현)는 지난 11월 6일 KBC광주방송 대표이사실에서 김치냉장고와 김장김치를 광주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대우전자 관계자는 "대우전자와 대유위니아 공장이 광주에 있는 만큼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기부활동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전달된 김치냉장고 7대와 김장김치 2,000kg은 광주광역시 아동복지협회에 지원될 예정이다.

강원



동화글로벌오쏘티스, 평창에서 신체교정구 제작 기증

동화글로벌오쏘티스(대표 김용식)는 지난 10월 24일 평창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신체교정구 기증 행사를 가졌다. 동화글로벌오쏘티스는 평창군 지역의 보행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 110명에게 총 3,300만 원 상당(110세트)의 교정구를 제작해 기증했다. 동화글로벌오쏘티스는 지난 2008년부터 2,050명에게 6억 1,000여만 원 상당의 교정구를 전달해 왔으며, 2017년에는 삼척, 원주, 강릉에 교정구를 지원한 공을 인정받아 2017년 강원도 사회공헌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원주시 나눔봉사단, 원주 시각장애인 위한 사랑 나누기

강원 사랑의열매(회장 한만우)가 10월 28일 원주사회복지센터에서 주최한 '사랑나누기 자원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행사에는 원주시 나눔봉사단(단장 정우문) 35명이 참석해 100여 명의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급식, 의료, 레크리에이션, 사회복지 상담 등의 지원을 수행했다. 정우문 원주시 나눔봉사단장은 "참석한 분들과 행복한 시간을 조금이라도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며 "단원들과 함께 행복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세상을 바꾸는 당신의 결심, 고맙습니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1억 원 이상을 기부하였거나 5년 이내 남부를 약정한 개인 고객 기부자들의 모임으로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참여와 지원을 통해 더 밝은 내일을 여는 사회지도자들의 모임입니다. 한국형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하고 있는 아너 소사이어티는 나눔문화를 선도하고 진정한 나눔가치를 창조해 나가고 있으며, 나눔을 실천하는 국내 최대의 기부자 클럽입니다.

## 대전



### 맥시스컴퍼니와 사회공헌 업무 협약 체결

(주)맥시스컴퍼니는 지난 11월 15일 대전 사랑의열매(회장 안기호)와 사회공헌 협약을 맺고 지역의 나눔문화 활성화에 동참했다. 이날 협약은 맥시스컴퍼니의 신제품인 '이제우린'에 희망2019나눔 캠페인 홍보문구를 삽입해 나눔문화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체결됐다. 조용래 맥시스컴퍼니 회장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맥시스컴퍼니가 사랑의열매와 함께 이웃을 위한 더 많은 활동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사업 전달식

대전광역시(시장 허태정)는 지난 11월 14일 대전시청사에서 '2018 저소득층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사업'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전달식에 따라 저소득가정 2,000가구와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 월동난방비 4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 중에서 구청의 추천을 받은 가구에 각 10만 원씩 지원되며, 30인 이하 복지시설은 공모를 통해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정원에 따라 60만~100만 원이 차등 지원된다.

## 사랑의열매 다양한 기부 방법

<p><b>문자기부</b> #9004 (한 통에 2천원)</p>	<p><b>ARS기부</b> 060-700-1212 (한 통에 3천원)</p>	<p><b>온라인기부</b> 같이가치 with kakao</p>	<p>상담 혹은 문의가 필요하다면 080-890-1212</p>
<p><b>계좌기부</b> 예금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민 003137-04-000306 농협 1082-01-001966 신한 100-013-446845 외환 068-13-21097-3 우리 052-581567-13-101 하나 399-810005-31705</p>	<p><b>기념일기부</b> 좋은 날, 기쁜 마음을 함께 나눠요 (문의 02-6262-3082)</p>	<p><b>이벤트기부</b> 즐거운 행사와 사랑 나눔을 함께 즐거보세요</p>	

### 부산 149호

이상훈 부산본병원 대표원장



"이 세상 누구라도 소중하고 귀하지 않은 생명이 없다. 그렇기에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싶다."

### 제주 92호

김누리 미스틱 3도 대표



"나눔은 행복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 제주 93호

장성욱 제주공항렌트카 대표이사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나눔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제주 94호

김순자님



"앞으로도 '남을 돕는 마음'을 간직하며 더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 대구 126호

정태화 (주)아진피앤피 회장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른다. 나의 나눔이 우리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작은 희망으로 전해졌으면 한다."

### 경북 89호

우국한 학기산김치 대표



"안동시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쓰였으면 좋겠다. 이번 기부 결정이안동시 취약계층 누군가에게 큰 희망을 줄 것이라 생각하니 정말 기대되며 행복하다."

### 경북 90호

박형명 (주)농업회사법인 태금유통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아버지를 본받아 기부를 결심했다. 나눔을 망설이고 있는 잠재 기부자들에게 행동할 수 있는 용기가 되었으면 한다."

### 경북 91호

송종박 영주장수조이월드 회장



"장수조이월드 영주 시민들이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었는데, 이 사랑을 지역에 다시 환원하고자 한다."

### 중앙 1952호

안성우님



"돈이라는 건 내 것이 아닌 관리하다 때가 되면 놓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눔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다."

- |  |   |
|--|---|
| <p><b>중앙회</b> 권오준 포항공과대학교 이사장, 전익관 뷰티메니지먼트솔루션 회장, 전수현 님</p>          | <p><b>충남 사랑의열매</b> 송원경 님</p>                                |
| <p><b>서울 사랑의열매</b> 정원석 부국증권 MS센터 대표</p>                              | <p><b>대구 사랑의열매</b> 임석기 미진분식 2.28점 대표</p>                    |
| <p><b>대전 사랑의열매</b> 박경자 님, 오형근 운하리조트(주) 대표</p>                        | <p><b>인천 사랑의열매</b> 천승현 님</p>                                |
| <p><b>부산 사랑의열매</b> 이금옥 님, 이오선 동아플레이팅(주) 대표</p>                       | <p><b>전남 사랑의열매</b> 장은정 이화수육장 목포하당점 대표, 이정아 화순현대요양병원 이사장</p> |
| <p><b>경북 사랑의열매</b> 권영만 통화효심요양원 대표</p>                                | <p><b>제주 사랑의열매</b> 황금신 회성종합건설(주) 대표이사</p>                   |
| <p><b>전북 사랑의열매</b> 조경숙 님</p>   | <p><b>세종 사랑의열매</b> 조형권 토담낙지한마당 대표</p>                       |
| <p><b>경기도 사랑의열매</b> 신대철 (주)도는 이사, 정재훈 님, 진용규 시사저널 경기취재본부 경기북부지사장</p> | <p><b>경기 사랑의열매</b> 이순선 (주)성창베네키 대표이사</p>                    |
|  | <p><b>강원 사랑의열매</b> 정의수 주식회사 단정바이오 대표이사</p>                  |

독자페이지



# 〈사랑의열매〉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지난호 독자 의견

《사랑의 열매》 회보를 들여다보면 다들 천사들이 것 같아 본받고 싶어요. 베푼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데 습관처럼 행동하시는 것 같아서 말예요. 재능기부도 있다는 것을 알고 저도 배웠어요. 회보를 보면서 베푼에 대한 배움을 얻어갑니다.

이미리 · 전남 여수시

‘BNK경남은행’ 기사를 읽고 이제 나눔과 배려는 선택이 아니라 서서히 필수수가 되어가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나눔리더 55명 동시 가입이나 지역 문화행사도 개최하고 소외계층에 생활필수품과 냉난방 용품을 공급하는 등 많은 일을 하고 있어 감사하네요.

최명연 · 대구시 달서구

‘젊은 기부자가 늘고 있다’는 내용을 보면서 기부자 연령이 점차 젊어진다 사실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태까지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중년층 이상이 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나눔이 젊은 층으로 확대되고 있어 미래가 밝아 보입니다.

최남이 · 부산시 북구



## 참여방법

- \* 이메일(E-mail: cckpr@chest.or.kr)로 보내주세요.
- \* 〈사랑의열매〉를 읽은 후 소감이나 의견을 보내주세요.
- \* 나눔에 대한 재미있고, 감동적인 경험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 \* 〈사랑의열매〉를 가족, 친구 등에게 선물한 인증 사진을 보내주세요.
- \* 〈사랑의열매〉 기사 및 편집에 대한 아이디어를 보내주세요.
- \* 보내실 때는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적어주세요.

## 독자 참여 사은품

독자 의견(3명)에 선정된 분에게는 내용 소개와 함께 문화상품권(2만 원)과 사랑의열매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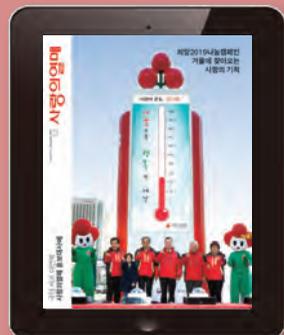


텀블러

우산

무릎담요

에코백



## 〈사랑의열매〉를 E-BOOK으로도 만나보세요!

〈사랑의열매〉 매거진은 ‘사랑의열매’ PC·모바일 페이지에서 e-book(전자책)과 PDF 파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하단의 ‘홍보자료’ 배너를 클릭하면 해당 서비스 화면이 나옵니다. 사랑의열매 홈페이지 [www.chest.or.kr](http://www.chest.or.kr)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세상에는 기회의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하나 파워 온 임팩트 프로그램을 통해 발달장애인들이 우리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함께 성장하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행복한 금융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ICT 데이터 전문가를 꿈꾸는 발달장애인 이준희씨는 하나금융그룹의 [하나 파워 온 임팩트]의 파트너사인 테스트웍스에서 무인자동차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하는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하나금융그룹 [하나 파워 온 임팩트]

사회혁신 기업들과 협력하여 발달 장애인의 직무개발 및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까지 사개발, 문화예술, 게임개발, 미디어콘텐츠, 커피로스팅, 가드닝 등 7개 기업에서 총 35명의 발달장애인이 적성과 재능에 맞는 전문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